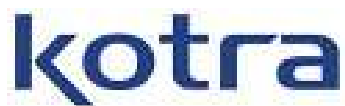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파나마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3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4
2. 주요 산업 동향 /5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6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8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0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11
대한수입규제동향 /12
관세제도 /13
주요인증제도 /14
지적재산권 /15
통관운송 /16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1
- 외국기업 투자동향 /22
- 우리기업 투자동향 /22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23
- 진출형태별 절차 /27
- 투자입지여건 /31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36
- 조세제도 /39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2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42
- 2. 물가정보 /49
- 3. 바이어발굴 /51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52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55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55
- 7. 이주정착 가이드 /59
- 8. 출장가이드 /62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파나마 (República de Panamá)
위 치	중미(콜롬비아 바로 위 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협에 위치)
면 적	75,517평방 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1/3)
기 후	열대우림 기후 (건기: 11월 말 ~ 4월, 우기: 5월 ~ 11월 말)
수 도	파나마시티
인 구	339만 명 / * 경제 활동 인구: 150만 명(2007말 기준)
주요 도시	파나마시티(130만 명, San Miguelito 34만 명 포함) 콜론(25만 명), 다비드(15만 명) 등
민 족	혼혈(메스티조 등 65%), 흑인(14%), 백인(10%), 인디안(6%) 중국계(5%)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카톨릭(93%), 신교(6%), 기타(1%)
건국(독립)일	1903.11.3 콜롬비아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Mr. Martín Torrijos Espino 당선일: 2004.5.2 취임일: 2004.9.1 임 기: 5년

자료원: 파나마 정부

나. 경제 지표 (2007년)

GDP	167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9.8%
1인당 GDP	4,920 달러
실 업 륜	6.3% (2007년말 기준)
물가상승률	3.5%
화폐 단위	Balboa(美달러貨 사용국으로 명목상 호칭만 발보아로 칭함)
환 율	US\$1 = 1 Balboa
외 채	107억 달러(2007년 기준)
산업구조	교통·통신·창고업(18.1), 부동산업(16.0), 도소매업 등(14.6), 정부기관(4.0), 제조업(7.3), 금융업(7.2), 건축업(4.3), 농축·수렵·임산(4.4), 기타 서비스(3.2), 전기·가스·수도(3.0), 어업(2.8), 호텔·식당업(2.8), 광업·채석업(1.0), 공공서비스·보건업(0.9), 사교육업(0.7), 기타(9.7)
교역 규모	수출: 1,085백만 달러(3.2% 증가) 수입: 5,475백만 달러(15.3% 증가)
교 역 품	수출: 새우, 바나나, 설탕, 커피, 멜론 등 수입: 원유, 자동차, 가전, 직물 등 2차산품

자료원: 파나마경제재무부, 파나마 감사원, WTA, EIU, IMF 종합

다. 한-파나마 관계

체결 협정	외교관계 수립: 1962. 9 문화 협정: 1974.6 서명, 1975.1 발효 항공 협정: 1979.12 서명, 1982.10 발효 투자보장협정: 2001.7 서명, 2002. 2 발효 사증면제협정: 2001.7 서명, 2002.2 발효 * 파나마운하 영구중립의정서 가입: 1980.11.4
교역 규모	우리나라의 06년 수출: 2,226백만 달러(28.4%) 우리나라의 06년 수입: 241백만 달러(-15.6%) 우리나라의 07년 수출: 2,218백만 달러(37.2%) ('07년 10월기준) 우리나라의 07년 수입: 205백만 달러(-2.8%) ('07년 10월기준)
교역 품	수출: 수송 기계, 광물성 연료, 가정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등 수입: 수송 기계, 비철금속 제품, 광물성 연료 기타 철강 금속 제품, 석유사 등
투자 교류	우리나라의 대 파나마 투자 현황 - 75건, 354백만 달러 (07. 6월 기준) - 파나마의 대한 투자는 전무
교민	300여 명 - 교민: 100여명 - 공무원, 지상사, 주재원 등: 200여명

자료원: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KOTIS,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2004년 대선에서 승리한 토리호스 대통령은 건축 정책과 외채 상환 등을 통한 경제 안정에 주력하고, 특히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통한 민생 기반 안정에도 힘을 기울여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6년 국민 투표에서 통과된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와, 10차 회담까지 이어진 연중 줄다리기에서 극적으로 구해낸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은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다는 평이다.

한편, 파나마 외교노선의 기본원칙은 상호주권 존중, 우의와 평화원칙 준수, 국제협약 및 의무 존중, 친 서방 관계 유지, 파나마운하 중립 유지, 선린우호 관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지 않고 철저하게 실리 위주의 중립적인 대외관계 노선을 추구한다.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이며, 개별 국가와의 FTA 외에 중남미에서 유행하는 어느 특정한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정치·사회 안정을 기반으로 파나마의 금년도 경제 성장도 밝게 내다보고 있다. 사회·경제 안정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파나마 운하, 국제 금융, 관광,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이 지속적으로 파나마 경제 성장의 근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연간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파나마의 전반적인 거시 경제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파나마의 경제 지표 및 통계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파나마 감사원에 따르면, 실업률만 두고 볼 때 2002년 14.4%에서 2007년 6월 말 기준 6.3%로 대폭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사회적으로는 작년 말 파나마 시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버스 결함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사건으로 18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희생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파나마의 교통 및 육로 운송에 대한 일대 혁신을 구상하고 실천화하는데 점화 역할을 하였다. 파나마의 향후 대중 교통 시스템 도입 관련하여 콜롬비아형 굴절 버스 모델 도입이나, 경전철 도입이나, 아니면 제 3의 선택이나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해 파나마의 공중보건의를 통해 판매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목숨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진 사상자가 30여 명이 넘는 '대형 의료 사고'의 발생은 아직도 후진국형 의료시스템의 비난을 벗어내지 못한 얼룩으로 남아 있다.

그래도 2006 년 한해는 전반적으로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의 국민 투표 통과와 미국과의 FTA 타결로 자국민들에게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다시 한번 꿈꿔 볼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준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상.하반기중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6월 28일 미국과 파나마가 정식으로 서명한 FTA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12월 말 양국간 극적으로 타결된 FTA협상은 이후에도 자국의 통상이익을 위해 협정문의 내용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해 왔으며, 결국 금년 6월말 FTA에 정식 서명하여 현재 미국 국회의 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간 FTA 체결에 따라 미국의 대 파나마 투자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 실버 세대 이민자들의 파나마 유입 증가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제2차 한-SICA 정상회담을 통해 2005. 9. 11 코스타리카에서 양국 수교 사상 처음으로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동 회담을 통해 양국 대통령은 파나마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미주 물류 중심지로서의 전략적인 파나마 위치 등을 높이 산 바 있다.

파나마 Torrijos 대통령은 파나마운하확장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파나마 투자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파나마의 APEC 가입에 대한 우리측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토마토를 비롯한 대파나마 농산물 수입을 위해 한국측 조사단이 파나마를 방문한 바 있다. 아울러 광우병 등으로 인해 소고기 수입이 민감해진 상황 아래, 파나마 산 소고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 농림부 측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 4월 개최된 서울식품기술전에 파나마 농축산협회 국장이 참관하여 파나마의 소고기 및 자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타진을 하였으며, 2008년에는 정식 부스참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함.

(자료원: 파나마 외교부, 각종 언론 등)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2007년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은 9.8%에 도달했으며 공공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과일 수출,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 호텔 운영업, 항만, 파나마 운하, 항공업, 육상 운송, 전자 통신, 금융업, 부동산 등에 대한 성장이 두드러졌다. 파나마 내수시장 및 콜론자유무역지대의 교역 규모 역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파나마 내수 시장의 수출 규모는 1,085백만 볼, 수입 규모는 5,475백만 볼로 총 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파나마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연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파나마의 금년도 경제성장을 밝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첫째, 파나마운하, 국제금융, 관광, 콜론 자유무역지대 등이 지속적으로 파나마 경제성장의 근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둘째, 민간 소비 증가와 내외국인의 파나마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업률의 경우 2006년 8%에서 2007년 6.3%으로 감소하였으나 비 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있어 실제 경제 상황의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2007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3.5%로 잠정 집계 되어, 미화사용국이라는 점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였다. 2005년 초부터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 했던 미국과의 FTA 협상이 12월 극적으로 타결되고,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 최종 확정됨으로서 파나마 경제의 제 2도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FTA의 경우 아직 미국의회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나마의 대외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일 및 고기류 수출, 콜론자유무역지대 교역, 관광업, 항공업, 운하 통관 등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나 커피 및 새우 수출의 경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제조, 발전, 건축, 상업, 호텔식당업, 전자통신, 금융업, 부동산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보건, 교육, 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파나마의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2004년 9월 1일 출범한 마르틴 토리호스 (Martín Torrijos) 정권은 정부재정 운영의 합리화, 정부회계 변칙 운용 정상화 및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미레야 모스코소(Mireya Moscoso) 前정권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부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비금융분야 재정적자를 GDP 대비 상한선인 2%에서 뚫지 못하고 그 상한선보다 훨씬 높은 5% 수준까지 올라 가도록 방치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금융 분야 재정적자폭을 GDP 대비 2%로 내리는 것은 현정권에 있어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며 공공지출 삭감, 공공 분야 종사자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므로 많은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적자폭 감소를 위해 200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재정개혁을 통한 기업 부가세 인상, 사회보장세 일시적 인하, 장기적 인상 및 자영업자 가입 의무화가 있다. 사회보장세 개편의 경우 심한 국민 반발로 인해 12월 말에 재개정 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2006년부터 시작 했다.

마르틴 토리호스 정권의 또 다른 과제는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일이다. 2006년 4월에 프로젝트 청사진을 내놓고 대국민 홍보에 정성을 다한 정부는 결국 2006년 10월 22일 동 프로젝트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켰다. 운하확장 메가프로젝트는 8개년 계획으로 총 예산은 52.5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3억불은 IDB를 비롯한 국제 기관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규모는 운하 통행세를 인상하여 확보할 예정이나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중미 국가와 EU 간의 바나나 분쟁이 EU의 승소로 끝난 후, EU가 수입 바나나에 대해 톤당 230유로의 단일 관세를 2006. 1. 1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파나마 바나나 농업인 들은 동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 생산 제품과의 경쟁이 어려워 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물색 중에 있다. 파나마 정부는 인근 중미 국가와의 협력으로 동 조치 조정 요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바나나는 파나마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상품이다.

미국은 자국 소고기에 대한 까다로운 파나마 보건부 검사 제도 절차 없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승인한 소고기를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파나마는 미국의 선착 순 설당 쿼터 배정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자국 민감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파나마간의 FTA 협정(안)은 2007년 6월 28일 체결되었고, 파나마 의회는 동 FTA 협정(안)을 인준했으며 2007. 12월 현재 미국의회의 인준만 남겨둔 상황이다.

자료원: 주요 언론 종합, WTA, 파나마 감사원, 파나마 외교부

2. 주요 산업 동향

1) 농축·수산업

2007년 3/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파인애플, 멜론, 수박의 대외 수출량은 국제 수요 증가로 인해 30%로 대폭 늘어났다. 파나마의 주요 농산물인 바나나의 경우에도 19%의 성장율을 견지하였다. 축산 관련 제품 생산량 역시 11%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쇠고기 4%, 가금류는 15%의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수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1.2%(2007년 3/4분기 기준) 감소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인 새우의 수출량도 감소했다.

2) 제조업

2007년 3/4분기 중 4.4%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시멘트, 콘크리트, 석회, 석고 등 건축용 자재 생산도 늘어났다. 제조업의 성장세와 연결되어 전기 소모량은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바 있다.

3) 전기 및 수도

전기 및 수도 생산량은 4.2% (2007년 3/4분기 기준) 성장했다. 수력에너지 생산량은 4.5% 증가한 반면 화력 발전은 9.2% 감소하였다. 배전량은 5% 증가했다.

4) 건축업

파나마 시티 내 태평양 부근 지역인 Costa del Este, Punta Pacifica내 30층이 넘는 거주용 건물 건축이 급성장하면서 전반적인 건축업 역시 2007년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파나마 운하 및 주요 항구 보수, 도로 인프라 확장 부문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 허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5) 상업 및 무역

식음료, 건축 자재 등에 대한 생산량이 늘게 되면서 도매 규모 또한 영향을 받아 15.3% 증가 (2007년 3/4분기 기준)했다. 자동차 및 식품류 수입이 늘게 되면서 소매 역시 9.5%의 상승세를 보였다.

6) 호텔 및 식당업

호텔 이용률 부문에서 18.2%, 외국 관광객 방문으로 늘어난 식당 판매량이 15.0%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동 분야에 대한 성장률은 16.3%에 달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FTA 체결 현황

1) 미-파나마 FTA 개요

- 2004년 4월 양국간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전개되어 온 미-파나마 FTA 협상이 2007년 6월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미국의 의회비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 협상이 타결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파나마의 수입 민간품목인 닭고기, 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감자, 양파 등에 관세인하 시기 및 쿼터량에 대한 이견차이로 협상 타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흘러나온 바 있으나, 양측 협상단은 결국 2007년 6월 28일 양국간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 미국은 이번 파나마와의 FTA 타결로, 농축산품에 대한 대 파나마 수출확대 이외에도, 향후 53억불 이상이 투입되어 전개될 메가프로젝트인 파나마운하 확장사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나섰다.
- 현재 파나마의 대외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다. 즉 파나마의 전체 교역량 중 대미수출이 34.1%, 대미수입이 50.4%로 이번 양국간 FTA 체결로 양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 파나마의 경우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 수출중인 전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 지며,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90%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여 년 동안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민간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파나마 내 쌀 총 생산량의 4.2%에 해당하는 11,500톤에 대해 20여 년 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 파나마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FTA 협상 내용이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등 인근 중남미 국가가 같은 협상에서 미국과 이루어낸 성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자평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타결이 미국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 종결 임박에 따른 파나마의 성급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오히려 파나마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즉, 금년 1월 9차 협상 이후 진전이 없던 양국간 협상이 이번 파나마의 대규모 협상단 파견 등의 '절실한' 노력으로 타결에 이르자 현지 파나마 언론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일부에서는 앞으로 파나마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불안감과, 이외에도 동 FTA 가 오히려 파나마의 실업률 문제를 가중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파나마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다.
- 한편 미국과 파나마의 FTA 협상 타결로 우리의 대 파나마 자동차 수출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파나마 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을 볼 때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도 앞으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현재 TOP5에 자리잡고 있는 일본산,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내 우리자동차 생산기지를 최대한 활용한 간접수출확대가 권장된다.

2) 파나마-주요국 FTA 체결현황

- 체결 및 발효중인 국가: 엘살바도르, 대만, 싱가포르
- 협상타결 후 발효전인 국가: 칠레, 미국, 중미4개국 (엘살바도르 제외)
- 관세협정국가: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나. 주요국과의 관계

1) 對美관계

1999.12.31일 파나마운하를 인수함에 따라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미국과는 미군 철수 및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제반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계속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입장이다. 제 9차까지 끌어온 미국과의 FTA 협상은 미국 무역대표부 인사 교체 및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인해 완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對中南美 관계

파나마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여타 중남미 국가와 다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예: 98년 리오 그룹 의장국), 경제적으로는 중미 국가와는 경제 구조가 다르고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미지역 경제 통합에 미온적 입장이며, 오히려 양자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 6월 현재 중미 여러 국가의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3) 對日本 관계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파나마운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미국의 파나마운하 반환 후 파나마와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파나마운하 확장에도 적극 참여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해 2002년에는 JETRO 파나마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정부관료, 기업체, 일반국민의 일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하다.

4) 對中國(臺灣) 관계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지위를 잃은 대만은 파나마를 위시한 중미국가에 모든 외교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반환되는 파나마운하 및 미군기지에 대만 기업의 투자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파나마운하 3대 이용국 중 하나인 중국은 96년 무역대표부 설치를 기회로 주요 인사의 파나마 방문을 추진하고, 홍콩 주재 파나마 무역대표부 존속을 허용하는 등 파나마와 외교관계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파나마 측은 대만과의 기존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 동시에 2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에는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2004.1.1일을 기해 발효했다.

다.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파나마는 SELA(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CEPAL(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Nations),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 중남미지역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자료원: 언론 종합, 파나마 외교부, EIU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파나마는 전체무역의 상당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우와 바나나가 주요 수출 품목이며, 석유, 자동차 및 기계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파나마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불, %)

순위	국가명	2004	2005	2006	점유율*	증가율**
		887	955	984	100	3.04
1	미국	431	415	378	38.41	-8.92
2	스페인	45	85	80	8.13	-5.88
3	네덜란드	38	46	65	6.61	41.30
4	스웨덴	58	54	55	5.59	1.85
5	코스타리카	37	38	44	4.47	15.79
6	벨기에	30	25	37	3.76	48
7	영국	7	18	33	3.35	83.33
8	과테말라	12	21	32	3.25	52.38
9	대만	11	20	23	2.34	15
10	니과라과	18	21	17	1.73	-19.0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주: 2007년 통계자료 미정

파나마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불, %)

순위	국가명 전체	2004	2005	2006	점유율*	증가율**
		3,582	4,111	4,657	100	13.28
1	미국	1,031	1,118	1,247	26.78	11.54
2	콜론자유무역지대	445	500	554	11.90	10.80
3	쿠라사오 아일랜드	254	469	470	10.09	0.21
4	코스타리카	177	192	238	5.11	23.95
5	일본	189	186	221	4.75	18.81
6	멕시코	142	152	166	3.56	9.21
7	콜롬비아	131	141	163	3.50	15.60
8	브라질	71	98	163	3.50	66.33
9	한국	101	101	159	3.41	57.43
10	중국	116	125	144	3.09	15.20

주1: 2006년 전체 교역 규모에 대한 국 별 점유율임

주2: 2005년 실적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율임

주3: 2007년 통계자료 미정/자료원: World Trade Atlas

파나마 10대 수출품

(단위: 백만 불, %)

HS	품목 명 전체	2004	2005	2006	점유율*	증가율**
		887.4	955.1	985.1	100	3.12
03	어류, 해산물	415.7	421.6	353.9	35.94	-16.05
08	과실, 견과류	191.0	234.4	302.2	30.68	28.91
01	산동물	13.3	21.0	29.64	3.01	40.89
02	육류	18.7	21.6	23.51	2.39	8.71
48	지와 판지	15.7	17.3	22.2	2.26	28.16
07	채소류	9.9	26.2	22	2.24	-15.86
17	당류, 설탕과자	10.6	23.7	20.7	2.11	-12.24
72	철강	21.2	21.2	16.4	1.67	-22.5
30	의약품	13.2	15.0	15.3	1.55	1.76
22	음료	16.6	17.8	12.2	1.24	-31.41

주: 2007년 통계자료 미정/자료원: World Trade Atlas

파나마 10대 수입품

(단위: 백만 불, %)

HS	품목 명 전체	2004	2005	2006	점유율*	증가율**
		3,582	4,110	4,658	100	13.31
27	광물성연료	522	737	839	18.02	13.84
87	자동차 및 부품	376	424	509	10.95	20.16
84	기계류	348	396	469	10.08	18.43
85	전기기기 및 부품	304	367	378	8.14	3.01
72	철강판	122	135	199	4.28	65.44
30	의약품	154	169	196	4.22	15.84
39	플라스틱 제품	144	120	159	3.42	17.82
48	지와 판지	111	113	131	2.82	15.88
73	철강제품	68	73	83	1.78	26.70
38	화학제품	63	80	75	1.62	11.37

주: 2007년 통계자료 미정/자료원: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007년 10월 기준 연간 약 22억불의 대 파나마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편의국적선으로 분류되는 선박수출이 18억불 내외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대 파나마 주요수출품목 중 최근 승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칼라 TV 등 가전제품도 현지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006년 10. 22일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가 국민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확장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계류와 각종 하역장비 등의 수출도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우리의 대 파나마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불, %)

연도	금액	증가율
2002	1,184	-31.1
2003	1,252	5.7
2004	1,264	0.9
2005	1,622	28.4
2006	2,226	37.2
2007. 10월	2,218	19.5

자료원: KOTIS

연도별 우리의 대 파나마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불, %)

연도	금액	증가율
2002	143	1.0
2003	179	25.0
2004	294	64.1
2005	247	-15.6
2006	241	-2.8
2007. 10월	205	-0.2

자료원: KOTIS

우리의 대 파나마 품목별 수출실적(MTI 4단위 기준)

(단위: 천불, %)

순위	MTI 4단위	품목명	2006		2007(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226,691	37.2	2,218,215	19.5
1	7461	선박	1,764,807	34.2	1,956,819	31.8
2	7411	승용차	65,090	82.9	67,147	54.8
3	6134	아연도 강판	27,107	239.5	24,454	33.6
4	8211	칼라TV	32,856	21.4	21,153	-27.1
5	7420	자동차 부품	7,516	-0.6	19,416	247.3
6	6123	철근	32,535	173.3	13,354	-30.1
7	7251	건설중장비	9,463	97.4	11,602	81.5
8	8230	냉장고	13,996	35.9	11,014	7.8
9	6111	철강 및 비합금 형강	13,637	174.1	10,488	13.3
10	6137	도금강판	5,307	6,383.8	9,016	146.7

자료원: KOTIS

우리의 대 파나마 품목별 수입실적(MTI 4단위 기준)

(단위: 천불, %)

순위	MTI 4단위	품목명	2006		2007(1월~0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41,088	-2.8	205,242	-0.2
1	7461	선박	211,236	-12.5	150,950	-24.2
2	1310	원유	0	-	45,713	-
3	6221	동과 및 스크랩	3,476	2.8	2,632	-21.1
4	1335	중유	1,230	52.8	2,278	121.3
5	6211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473	3.9	714	221.1
6	1332	경유	260	-25.2	644	197.7
7	1336	윤활유	323	31.2	550	158.9
8	6184	고철	25	-92.7	543	2,589.5
9	8211	칼라TV	9	1,340.8	489	5,631.9
10	4690	기타수산가공물	167	-9.4	309	84.9

자료원: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개황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파나마는 1997년 WTO에 가입한 후 양허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대 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파나마와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서 이 같은 점을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단,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 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다. 수입금지품목

파나마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전투용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 (팜플렛,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라. 수입제한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 (법무부 사전수입승인 필요)
- 다이ना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마.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한 바 있다.

(자료원 : 파나마 세관총국)

바. 수입쿼터

파나마는 96. 12. 26. 행정령 47호로 수입쿼터, 수입사전허가, 수입수량제한 등 일체의 수량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가. 개황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미 국가들과는 1970년대 쌍무협정에 의거해 일부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미와의 특혜무역협정 내용은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교역을 목표로 한다.

파나마가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이다. 이들 국가와는 교역가능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동 특혜무역협정의 관세율은 대략 1-10%이다. 한편 인근 중남미 지역 경제블럭에 속해 있는 특정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관세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엘살 바도르와는 2002. 3. 6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03. 4. 11일 발효되었다. 대만과도 2003.8.21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2004.1.1일부로 발효시켰다. 싱가포르 및 칠레와도 FTA 협상을 완료했으며 협정문 서명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편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는 부분관세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는 쌍무 특혜관세협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미 5개국과는 2006년 4월부터 개별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FTA 협상이 재개되었다. 2006. 1월 제9차 파나마 - 미국 FTA 협상을 가진 바 있으나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 동 회의를 통해서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FTA 체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나.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94.12.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 로 수입관세 상품분류체계를 CCCN에서 HS 방식으로 변경하여 '9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의 관세분류를 위한 상품 분류는 21부, 97류, 1,241 Partida, 5,019개 Sub-Partida, 8,298개 Inciso 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99년 WTO 가입에 따라 '98.1.1일부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이라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율 수준은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종가세 관세율 (0, 3, 5, 10, 15%)로 단순화되어 있다. 먼저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 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 또는 조정되었다.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 후 양허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관세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99년 정권 교체 이후 현재 까지도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등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파나마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 이외에 모든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ITBM) 5%를 부과한다.

(자료원: 파나마 관세청, 관세율표, EIU)

6. 주요인증제도

가. 품목별 보건위생 안전규정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파나마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류는 보건부 의약품·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 파나마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보건사회부가 발급하고 주한 파나마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여진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 (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 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음식 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1)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2)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3)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 (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자료원 : 파나마 보건부, 농축산개발부)

7. 지적재산권

가. 지식소유권 개황

파나마는 국제지적소유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 음반보호 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 위성관련 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적소유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98.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위조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 '98. 3월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적소유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적소유권 관련 법규는 '94. 8월 발효된 지적소유권법(Law 15) 및 '96.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 (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 한 파나마는 '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파나마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적소유권 침해 소송 제기 시 장시간 소요되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적소유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품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몇 개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특허권

파나마 공업소유권법에 의거 특허권은 20년간,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15년간 보호되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파나마국민의 소유권이 최소 30% 이상인 파나마 등록 법인이 특허권 소유자를 경우에는 10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 발효 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특허종류에 따라 외국인은 5-15년, 파나마인의 경우 5-20년 간 보호되었다. 파나마의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발효된다.

다. 상표권

파나마의 상표권도 공업소유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업소유권법에 발효에 따라 상표권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밖에 동법은 상거래 비밀 보호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라. 저작권

파나마는 '94년 세계지적소유권 기구가 제시한 모델에 따라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으로 파나마 저작권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 개념에서 보호된다.

(자료원 : 파나마 공업소유권법, 외무부)

8. 통관/운송

가. 개황

수입자는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 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 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 (Boleta de Pago)' 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참고로 관세납부 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1)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제서류 제출→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실시 (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2)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 - 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 없이 정상 근무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대행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 박람회 (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 통관대행업체인 Auturo y Aurauz, S.A. 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나. 통관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2)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10불)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불 이하이면 무료이고 100,000불 이상은 75불이다.

- 인보이스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쉬핑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4) 선적서류(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5)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납부증명서(Boleta de Pago)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해 산정한 관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서

다. 통관관련 단체 및 통관대행 법인

1)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Unión Nacional de Corredores de Aduana de Panamá)**
 - P.O. Box 5358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214-8917
 - Fax 507-214-7053
 - Email uncap@uncap.org.pa
 - Mrs. Yila M. Harris / President

2) 통관대행법인

- **Bullen & Bullen, S. A.**
 - P.O. Box 1060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507-229-7565
 - Fax 507-229-1922
 - Email bulle213@cableonda.net
 -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 A.**
 - P.O. Box 2653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2498
 - Fax 507-260-2625
 - Email duyoladu@hotmail.com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 A.**
 - P.O. Box 7319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507-229-4315 / 229-4210
 - Fax 507-261-1281
 - Email : albato@grupogardellini.com
 -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 A.**
 - P.O. Box 55-1004 Paitilla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0-7557
 - Fax 507-260-2986
 - Email hugoarjona@cwpanama.net
 - borisarjona@cwpanama.net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Arturo Arauz, S. A.**
 - P.O. Box 214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507-264-6575 / 264-2210
 - Fax 507-263-5989
 - Email abau@pananet.com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De La Rosa y De La Rosa, S. A.**
 - P.O. Box 2046 Panama 9ª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279-1183
 - Email edalar@cwpanama.net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라. 주요 공항 및 항구

1)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토쿠멘 국제공항(Aeropuerto Internacional de Tocumen)이 유일하다. 파나마 시내에서 고속도로(Corredor Sur)를 이용할 경우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시설이 낙후되고 크기가 작아 파나마정부는 파나마시 토쿠멘 국제공항 확장 및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토쿠멘 국제공항을 경영하는 국영기업 토쿠멘 국제공항주식회사(Aeropuerto de Tocumen S.A.)는 파나마법률 제23호(2003.1.29)에 의거 2003.6.1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국제 항공운송 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 IATA)가 토쿠멘 국제공항 확대 작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국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주로 확대하고 보수하는 것은 '활주로', '화물터미널', '공항내부 장비(에스컬레이터, 에어컨시설, 엘리베이터 등)' 등이다.

파나마 국제공항 확장 및 개선 프로젝트는 세계의 단계로 나뉘는데, 첫 단계는 현재 미국의 여러 공항 보수 작업을 이행한 바 있는 Leo A. Daly사와 Constructora San José(스페인)사와 Constructora Québec(파나마)사에서 합작으로 진행 중에 있다. 첫 단계 예산은 40억 달러로, 공항 측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비행관리시스템, x-ray 장비, 에스컬레이터 등 공항 시설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계는 화물터미널 보수가 주를 이룬다.

파나마시 토쿠멘 국제공항은 1947년에 건설돼 1978년에 첫 보수 작업을 거쳤으며 2006년 현재 두 번째의 확대 및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 Aeropuerto de Tocumen S.A.
- P.O. Box 0838-02408 Zona 12, Panamá, Republic of Panamá
- 전화 : 507-238-2600
- Fax: 507-238-4725
- Mr. Julio Ernesto Córdoba, General Manager

2) 국제항구

국제 항구로는 파나마 운하 양대양 초입에 5개 항구가 위치해 있다. 태평양에는 발보아항(Balboa)이 있으며 대서양에는 크리스토팔항(Cristóbal), 만사니요항(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 : MIT), 에버그린항(Evergreen/Colon Container Terminal), 콜론항(Colon Port Terminal)이 있다.

파나마의 항만 분야는 다가오는 Post-Panamax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파나마의 항만 분야는 전세계에서 도착하는 화물들이 중남미 각국으로 환적되는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크기가 커져 이른 바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 수주 및 건조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를 수용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파나마운하로는 이미 이러한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수로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수년에 걸쳐 세우고 있으며 2006년 말경 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운하 확장이 가지는 중요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는 데에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해 전국민의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파나마의 항만 분야도 앞으로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의 환적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항만분야도 변화하는 세계시장 경쟁추세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중미국가 항구에게 고객을 잃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운하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세계 컨테이너화물 교통량이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벌크화물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운하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컨테이너선, 크루저, 차량운반선, 유조선, 액체화물선, 벌트선, 냉동화물선 등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능력을 확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파나마 주요 항구 및 파나마운하 시설확장으로 일차적으로는 인프라가 확대되기도 하지만 파나마의 수출 증대를 통해 고용 증대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 기타 통관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 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자가조세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도착 통보접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원 : 파나마 관세청, 현지 실사)

IV. 투자

1. 투자환경

파나마는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있어 국별,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업종별 외국인 투자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이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는 물류 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중심지이며 중계 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 산업 투자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 비교적 간단한 조립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건설 계획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舊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태평양 경제 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 이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파나마는 그 지리적 위치, 산업력 취약 등의 요인으로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등의 면에서 항상 개방되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 친숙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미국의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으며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도 없다. 현재 파나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역시 미국 기업들로 Texaco,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Constellation Power, AES, Enron, Coastal Power, Bell South, Northville Industries, Chicago Bridge, Iron, Mobil, Continental Airlines 등이 있다.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한 관광산업, 부동산 건설업과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싼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최근 외국인 투자 규모는 2004년 1,012.3백만 달러, 2005년 1,027백만 달러, 2006년에는 총 2,56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3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로 금융 및 서비스, 건설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외국기업 상위 5개사를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 (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 (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등이 있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투자업체 중에는 동원 수산, 서진 해운, 한국특수선과 같은 해운업체, 삼성전자, LG전자, 한창, 유풍실업과 같은 제조업체가 투자진출(통계상 투자기업 수: 약 30건) 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기업등록이 자유로운 파나마의 기업법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와는 관계없이 업무 편의상 파나마에 기업을 등록해 놓은 데 불과하며 실제로는 파나마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 진출은 전무한 실정으로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상사지사, 현지투자 판매 법인 및 교민업체가 진출해 있는 정도이다.

가. 현지 법인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 전자, 삼성 물산, 삼성 전자, LG전자
LG전자 및 삼성 전자의 경우 중남미 본부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주재원이 있다.

나. 지사/지점

외환 은행,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삼성SDS, LG AD
외환 은행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한국 선박들의 운하 통과 수수료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진출한 LG전자, 삼성 전자 등의 법인운영 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원: 현지 실사)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 및 주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 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98. 8월 그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 (외무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상공부 산하 무역 진흥 기관 (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대외무역차관실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VICOMEX)를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엘살바도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위해 주력하는 등 FTA를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파나마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파나마의 투자 유치 관련 법규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54호 ('98.7.22일 제정)을 공표하여 동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54조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나. 투자 관련 주요 법규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법률 54호; '98. 7. 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 (법률 28호; '95. 6. 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 (법률 25호 ; '92. 11. 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 (법률 21호; '97. 7. 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 (법률 29호; 96. 2. 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 (법률 25호; '95. 8. 26.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 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다. 투자우대제도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각종 국내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서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우대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2)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3)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25호 (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 접세 면제.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4)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 (예, 3%의 특혜관세, 관세환급, 임시 수입통관 등)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5)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6)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후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7) 산화 의무 제한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직원의 90% 이상을 파나마인, 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혹은 기술자일 경우 전체 인원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8)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나,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40년 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하다.

9)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10)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도 특별한 장애 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2007년 자유화 할 예정)을 제외한 통신, 항만, 도로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 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 기업으로 인해 민영화 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3,000대 이상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안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원: 파나마 재경부, EIU, 파나마 노동법)

라.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 금지 업종인지 사전 심사 대상 업종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 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 무역 차관실 생산 투자 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 (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제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3백만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25호('94.8.26) 및 행정부령 제35호('96.5.24)에 의거 상공부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운하반환지역 관리청(ARI)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생산 투자 진흥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참고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업체 경영인의 국적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 막노동자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숙련 기술자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1998년에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외국인 투자 시 자본금 규모, 과실송금, 이윤 배당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투자한 후 10년 동안 투자 시의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원: EIU)

5. 진출형태별 절차

□ 파나마에 진출 가능한 다양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 회사 채권자가 직접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회사 정관에 따라 파트너의 회사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 유한 조합(Sociedad en Comandita Simple) : 회사 자본 개입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회사
- 주식 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됨
- 유한 책임 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회사명에 S. de R. L, SDAD, LTDA가 뒤에 붙으며 회사 자본 개입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됨

(자료원 : Investment in Panama, KPMG)

가. 현지법인

1) 회사의 설립절차

- 법정대리인 선임(반드시 파나마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 정관(Pacto Social) 작성
- 주식발행
- 출자의 이행
- 정관의 공증
- 상업등기소(Registro Público)에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 Registro Público) 발급

2) 소요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 US\$800~1,500
- 등기수수료 : US\$ 50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 등기세 : US\$150

나. 지사/연락사무소

1) 회사설립절차

- 법정대리인 선임(반드시 파나마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함)
- 본사 정관 사본(주한 파나마대사관 영사확인)을 첨부한 문서(Escritura) 작성
- 상업등기소(Registro Público)에 설립등기
- 등기부등본(Certificado de Registro Público) 발급

2) 소요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 US\$600~1,500
- 등기세 : US\$150

다. 사전준비단계

서울 본사에서 파나마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지정 설립을 담당할 직원이 파나마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 단기 체재 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본사정관 등 각종 증빙 서류의 준비 등이 필요하다.

1)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

- 2-3개월 장기체류용 아파트형 호텔 및 임시사무실
- 사무실 집기 리스트
- 주거 물건 리스트
- 고용할 사무원 등 직원의 채용조건 및 자격기준, 근로기준 등

2)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여권, 국제운전면허, 현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단기체류 visa로 입국

파나마에 입국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한 후에 이민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에는 장기체류 비자에는 Immigrant Visa, Temporary Visitor's Visa, Special Temporary Visitor's Visa와 Investor's Visa가 있는데 주재원의 경우에는 Executive Visa라고 불리는 Special Temporary Visitor's Visa나 Investor's Visa를 신청하게 된다. Special Temporary Visitor's Visa는 외국 본사에서 급여를 최소, 1,000불 이상 송금 받는 다국적기업 직원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며 Investor's Visa는 금융, 상업 및 제조업에 투자한 업체 직원에 부여되는 비자이다.

4) 사무실 및 주거 확보

파나마에서는 법인설립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에 사무실 확보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파나마에 입국한 후 파나마시에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주택 임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파나마 시내에 적정 규모의 주택 임차 전에는 아파트형 호텔에 투숙이 가능하다.

5) 종업원 확보

현지 지사 개설 후 직원은 주로 신문광고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나마는 우편배달부가 없으므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해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 후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이밖에 사회보장제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원천 징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월 급여의 1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도 7.25%를 원천공제하여 기금운영을 담당하는 Caja de Seguro Social에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세 2% 중 고용주가 1.25%를 나머지 0.75%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 징수 해야 한다.

6) 후속조치

지사 개설 후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상공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된다. 현재 파나마에는 3가지 종류의 영업허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사의 경우, Commercial License Class A를 발급받아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7) Commercial License Class A

- 무역, 도매, 은행, 보험 영업허가

8) Commercial License Class B

- 소매, 대리점 영업, 부동산, 레스토랑, 주유소 등 동 영업허가는 파나마 국적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발급된다.

9) An Industrial License

- 광산 및 제조업, 건설업 영업허가

영업허가는 법정대리인(변호사)를 통해 상공부 내국상업총괄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신청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증(Licencia Comercial) 또는 영업등록증(Registro Comercial)이 발급되는데 소요비용은 법정대리인 선임비 US\$400~700, 허가증 발급료 US\$50 또는 등록증 발급료 US\$10 이 소요된다. 영업허가 또는 등록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임시허가증을 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사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연락사무소 역할만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

(자료원 : PAMCHAM, EIU)

라. 지사개설 가이드

파나마는 중남미국가 중 가장 선진화된 기업법(corporate law)를 갖고 있어 회사 설립이 매우 용이하다. 즉 파나마에는 기업 설립 시 주주의 국적 또는 거주지 제한이나 납입자본금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사 개설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정관을 신규로 작성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지법인 성격의 지사가 개설되며 본사 정관으로 상업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면 자본금 출자 없이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가 설립된다. 이러한 형태로 현지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은 다른 중남미국에서 하는 한국업체도 많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투자업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파나마에서는 은행업을 제외할 경우, 지사나 연락사무소도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영업을 가능하다. 현지법인 설립은 다음 절차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상공부 상업 등기 총괄국(Dirección General de Registro Público)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되며 약 1주일이 소요된다.

(자료원 : Investment in Panama, KPMG)

마. 공장설립 절차

파나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대지 및 공장 건물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시설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과 기반시설을 갖춘 산업단지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나마에는 Panexport Export Processing Zone을 비롯한 여러 개의 수출가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제조업분야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최대 20년 간 대지 임차 후 공장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공장건물 확보와 함께 통신, 전기, 공업용수 배정, 하수 처리시설 등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다.

파나마의 제조업 투자의 경우, 전기 통신비 등 간접비용이 다소 높으며 낮은 생산성, 숙련 노동력 부족, 파나마 제조업 미발달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대규모 제조업 투자지로서는 부적합하며 중남미 물류, 해운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물류의 집화 및 배분, 단순 조립 및 가공 후 인접국 재수출을 위한 투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투자관련 정부기관

파나마 대외무역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vicomex.gob.pa)은 파나마 통상산업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산하 기관으로 1998. 7 월 파나마 수출 및 투자 유치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VICOMEX의 생산 및 투자 유치 증진부(Dirección Nacional para la Promoción de la Producción y la Inversión)에 소속되어 있는 투자진흥과(Departamento de Promoción de Inversiones)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투자가의 공항 수속 절차 편의
- 정부 관계자와의 미팅 지원, 자동차 렌탈 등 각종 예약 지원, 주요 지역 투어 지원
- 파나마 투자 기회 관련 세미나 및 프리젠테이션
- 투자 홍보 순회
- 해외에서 파나마로 혹은 파나마에서 해외로의 교역 및 투자 사절단 파견
- 해외 전시회 정보 제공
- 통계, 관련 법, 주요 산업 동향 정보 제공
- 투자가와 공공 기관 및 사기업간의 연결
-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수속 촉진
- 투자 유망 분야 및 파트너 조사 및 추천
-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레터 송부
- 투자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
- 법률 및 컨설팅 관련 기업 정보 제공

* 투자진흥과장 : Licda. Gloria de la Espriella(gdelaespriella@mici.gob.pa)

(자료원 : 파나마 대외무역차관실)

6. 투자입지여건

가. 경제구역별 여건

임금수준, 에너지 비용 등이 높아 파나마 투자여건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파나마 국내시장에는 그러한 설명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수출가공지역(Zona Procesadora para la Exportación)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에 투자해 인근 중남미,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외국업체들이 나뉘대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창설되면 우리나라 업체는 미국에서는 중남미 상품과, 중남미 시장에서는 미국 상품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파나마의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의 근거법규는 1992.11.30일 제정된 법률 제25호이다. 이 법에 의거해 여러 개의 수출가공지역이 설립된 이후 나뉘대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가공지역은 보세가공 및 수출을 하기 위해 파나마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외국의 기술과 원자재를 도입해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 데에 매우 적격이다. 앞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고 파나마도 미국과의 FTA를 맺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수출가공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은 커지는 동시에 외국인업체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가공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단순제조, 조립, 가공,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생산용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포장재, 원료 반입에 대한 조세,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수출에 따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며 자본 및 자산에 대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파나마 국내의 까다로운 노동법규를 수출가공지역 내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출가공지역은 다음의 6개이다. 다른 지역도 있으나 아직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다. 파나마는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도 맺을 경우 수출가공지역에 대한 외국인 업체들의 투자 관심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및 인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파나마 수출가공지역에의 투자가 적극 권유된다. 물론 이에선 해당 상품에 대한 중남미 전체의 현지 시장조사를 해야 하며 사업성, 이윤성 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Zona Procesadora Ojo de Agua/PANEXPORT

- 사서함 : P.O. Box 8001, Panamá 7, Panamá
- 전화 : 507-273-7008
- Fax: 507-273-7008
- E-mail: aidaum@pty.com
- 담당자 : Aida Michelle U. Maduro
- 크기 및 위치
 - 크기 : 31헥타
 - 위치 : 파나마 교외 San Miguelito 지역(국제공항에서 20분, 발보아항에서 30분)
- 입주업체

- Apothecary Inc.
- Glaxo SmithKline Beecham
- I.M. Export American
- Expert Diesel
- Fenix Trading
- Switzverdan Corp
- Panama Line -
- Via Verde -
- International Paint
- Research Cos. Panama
- Kon Des International
- CUMEPASA
- Techno-Mill
- De Lidia Corp.
- Ebanisteria Cimbaue
- Santa Cruz Beverage Corp.
- IPIC Investment International
- Bluntez Corp.
- Global Parts and Machinery

□ **Fort Davis Export Processing Zone(Corporacion Sino Panamena de Inversiones)**

- 사서함 : P.O. Box 2414, Colon, Republic of Panama
- 전화 : 507-473-0198
- Fax: 507:473-0590
- E-mail: pharris@ari.gob.pa
- 담당자 : Pablo Harris, General Manager
- 크기 및 위치
 - 크기 21헥타
 - 대서양 연변의 Colon시에 위치
 - 콜론자유무역지역에 인접
 - 원래는 대만 업체 전용공단으로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모든 나라 업체에 개방 입주업체
 - Moto Mundo, S.A., motorcycle assembling
 - Yin-Hsin Plastics, plastic bags manufacturing.
 - Oversea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construction contractor.
 - INCAP, S.A., glue manufacturing.
 - Uniplas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mamparas, tables).
 - Multipack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tables, mamparas).
 - TTC Corp.
 - Karma Panama

□ **Proinexport Tocumen**

- 사서함 : P.O. Box 4182, Panama 5, Panama
- 전화 : 507-292-5411
- Fax: 507-292-5583

- Contact: Gabriel Diez, General Manager
- 크기 및 위치
 - 크기 51헥타
 - 국제공항에 인접
 - 태평양 연변인 발보아항에서 28km 거리
- 입주업체
 - Procesos de Reclicaje
 - Vidrios Panamenos

□ **Zona Procesadora de Exportacion Albrook, S.A.**

- 사서함 : P.O. Box 1406 Balboa, Panama, Republic of Panama
- 전화 : 507-263-0021
- Fax: 507-223-9712
- E-mail: info@albrookpark.com
- <http://www.albrookpark.com/>
- 담당자 : Luis Arrieta, President
- Diogenes Ardines - General Manager
- 크기 및 위치
 - 크기 5헥타
 - 태평양 발보아항과 인접
 - 주로 서비스업종에 종사
- 입주업체
 - Specialty Metal & Services Co.
 - Intertek Testing Services Panama, Inc.
 - Super Joyas S.A.
 - Panama Teledata
 - A&P Manufacturing Plant.

□ **Mapresca Zone (Corozal)**

- 전화 : 507-317-6025
- Fax: 507-317-6022
- 담당자 : Fotis Lymberopulos, President
- Julio Rios, General Manager
- E-mail: zpcorozal@cwpanama.net]
- <http://www.zpcorozal.com/>
- 크기 및 위치
 - 크기 12헥타
 - 태평양 연변 발보아항과 인접
 - 24,000 M3 용량의 냉장시설 보유
- 입주업체
 - Procesadora de Alimentos Maty S.A.
 - Ocean Supplies Corp.
 - Exameron Industries Corporation
 - Redemar S.A.

- Transporte Rodaro S.A.
- CBH Construcciones S.A.

□ Schlohbm Zone

- 주소 : Capira, Panama, Republic of Panama
- 전화 : 507-248-5677
- Fax: 507-248-5677
- E-mail: jsaavedra@hotmail.com
- 담당자 : Carl Schlohbm, President
- Mamie Arnold, Administrator
- 크기 및 위치
 - 크기 2 헥타
 - 위치는 파나마 시에서 서쪽으로 30~40분 떨어진 Capira 지역에 위치
 - 주로 직물 생산
- 입주업체
 - Panama Sam
 - Godzilla Import & Export

파나마 수출가공지역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대외무역차관실(Vicomex)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Vicomex)

- 사서함 : P.O. Box 6-1897, Panama 6, Panama
- 전화 : 507-360-0600/ or 507-360-0700 Ext. 2307
- Fax: 507-321-0278
- E-mail: vicomex@mici.gob.pa
- 담당자 : Susana Tan, Director of Export Processing Zones Ofelia Diaz(담당자)

나. 콜론 자유무역지대

콜론자유무역지대는 1948년에 설립된 중남미에서 가장 최대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이며 세계적으로는 홍콩 다음으로 큰 제2위의 자유무역지대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의 대서양 편에 위치한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에 인접해 있으며 파나마시로부터의 거리는 90km 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는 무기류와 석유관련제품을 제외한 모든 일반상품의 수입, 저장, 변경, 재포장, 및 재수출에 있어 파나마 세관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어 중남미지역 및 유럽으로 재수출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53년 설립된 파나마 정부의 자치행정기구인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400ha이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일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허용되며 수입과 재수출시 모든 세금이 면세된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하는 업체에는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조세납부 유예, 파나마인 고용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 시 배당세가 면제되며 국세나 지방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콜론자유무역지대는 파나마운하와 중남미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중남미 소비재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물류 유통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 및 마약유통 기지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지적 소유권 위반상품 거래, 도난 자동차 재수출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제나 영업허가 없이 정관 및 은행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회사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창고시설 일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임차하여 창고 시설을 건설. 토지임차는 최대 20년까지 가능.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기존 창고시설을 구입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중인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대리점 계약은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됨.)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창고시설을 임차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영업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재수출
- 파나마 내수시장에 판매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상품을 콜론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수출
- 콜론자유무역지대내 다른 업체에게 판매

한편 baru자유지역(Zona Franca de Baru)이 파나마에 새로이 설치되어 콜론자유무역지역과는 별도로 앞으로 각광을 받는다. baru는 파나마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으로 주변 지역은 농업, 어업에 전통적으로 종사해 왔으나 앞으로 다수의 물류, 중계무역, 가공산업 업체들이 baru자유지역 안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市에서 서북쪽 방면에 있는 baru지역은 코스타리카에 인접한 Chiriqui의 Amuelle항 (Puerto de Armuelle)에서 약 30분 거리이며 파나마市에서는 비행기로 15분, 자동차로 7~8시간 소요된다. 파나마정부는 건국 1백주년을 기념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물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baru자유지역을 육성하고 있다. 입주하는 업체는 취급 제품에 대해 수출입 등 중계무역, 보세창고 운영, 복합운송, 전시, 포장, 양하역작업, 조립 등 콜론자유무역지역에서와 같이 모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수출가공지역도 함께 운영해 외국인투자도 환영하고 있다.

- Zona Franca de Baru
 - 전화 : (507) 770-9211
 - 팩스 : (507) 770-7205
 - 이메일 : gerencia@barufreezone.com
 - <http://www.barufreezone.com/>

이와 더불어 1992년에 파나마 정부는 특정 지역을 석유 수출 지대(Zonas de Exportación de Petróleo; PEZs)로 지정,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석유의 생산, 정제, 석유 및 석유 파생제품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였다. PEZs에서 바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국제 공항을 통해 해외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파나마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파나마 내부 기업에 해당되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주요 PEZs로는 Petroterminal de Panamá, Refinería de Panamá, Atlantic Pacific, Decal Panamá, Ogden Aviation Services, Petroport, Alireza Mobil Terminal, Parque Industrial Marítimo de Panamá 등이 있다.

(자료원 : 콜론자유무역지대 관리청, 바루자유지역)

7. 노무관리

가. 고용

파나마에는 특별한 고용절차가 없으며 주로 신문광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여 서류 접수 후 면접을 통해서 고용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고용계약이 체결된다. 고용계약의 형태에는 무기한계약, 한정기한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한정기한 계약의 경우에는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기술훈련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최장 3년으로 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기술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계약 체결 당시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한정기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특정 프로젝트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고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 한정기한계약 또는 특정 프로젝트 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인력

현재 파나마의 노동인구 중 80%가 민간부문, 20%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2007년 기준 실업률은 8대% 이다. 최저임금은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시간당 1.2-1.8불이다. 파나마는 높은 실업률로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나 부와 교육의 편중이 심하다. 노동자 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주변국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다. 그러나 파나마 중상류층의 경우, 미국으로의 유학이 보편화되어 있어 학위를 소지한 영어, 스페인어 구사 가능 고급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다. 임금

파나마의 임금수준은 공장생산직 월 300-400불, 사무직 여직원 월 500-600불, 대졸 남자 사원 월 800-1,300불 수준이다. 다국적 기업 평균 월급은 1,700불, 국내기업은 1,300로 집계 되고 있다. 근무능률은 중남미 전체로 보아 중간 정도이나 공통적인 특성으로 느긋한 성격이 일반적이다. 급여는 주로 매월 15일 및 말일에 지급한다.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야 하며 업적 수당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최저 임금이 보장된다. 최저 임금은 월 284.96 불이며 이는 2006.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최저 임금은 매 2년 마다 검토되며 지역, 회사 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임금 이외의 비용으로 매 4개월마다 월 급여의 1/3을 지불하는 보너스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지불을 유보할 수 있다.

라. 외국인고용

파나마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파나마 노동 및 사회복지부로부터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노동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파나마정부는 파나마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무직의 경우 10%, 기술 및 전문직의 경우 15% 이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중 파나마인과 결혼한 사람, 파나마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파나마인으로 간주된다. 단, 파나마에서 단순히 영업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거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현지인 사회보장

적자가 지속 누적된 사회보장기금 제도를 2005 년 하반기부터 개선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발로 재개정, 2006 년 1 월 1 일부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파나마 내에서 근무 하는 모든 파나마 국민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국제기관, 외교관 및 영사관을 제외한 파나마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개인사업가에 이에 해당된다.

1)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

- 고용자(2005. 12. 31 까지 근로자 소득의 11.25% 부담)
 - 2006. 1. 1~2007. 12. 31 : 근로자 소득의 10.75%
 - 2008. 1. 1~2010. 12. 31 : 근로자 소득의 11.50%
 - 2011. 1. 1~2012. 12. 31 : 근로자 소득의 12%
 - 2013. 1. 1부터 : 근로자 소득의 12.25%
- 근로자(2005. 12. 31 까지 본인 소득의 8.25% 부담)
 - 2006. 1. 1~2007. 12. 31 : 본인 소득의 7.25%
 - 2008. 1. 1~2010. 12. 31 : 본인 소득의 8%
 - 2011. 1. 1~2012. 12. 31 : 본인 소득의 9%
 - 2013. 1. 1부터 : 본인 소득의 9.75%
- 개인 사업가(2006. 12. 31 까지 사회보장세 부담 의무 대상 미적용)
 - 2007. 1. 1~2007. 12. 31 : 본인 소득의 9.5%
 - 2008. 1. 1~2010. 12. 31 : 본인 소득의 11%
 - 2011. 1. 1~2012. 12. 31 : 본인 소득의 12.50%
 - 2013. 1. 1부터 : 본인 소득의 13.50%

2) 파나마 사회보장제도 수혜 범위.

☐ 질병

- 진단 및 치료, 수술, 약품류, 치과치료 그리고 입원
- 질병으로 인한 18일 이상의 결근시
- 수혜자 범위
 - 가입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일 경우 25세 미만), 어머니, 60세 이상의 아버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임신

- 임신 중, 출산, 산후 건강쇠약과 출산휴가비
- 신청 전 8개월 중 최소 4개월 분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가능

☐ 장애

- 질병 또는 육체나 정신적인 장애로 정상근로자 때 받았던 보수의 1/3 이하를 받게 되었을 경우
- 보상 조건
 - Comision Prestacion 에서 장애자 판정
 - 불구자가 되기 전 최소 36개월 분 보험료 지불
 - 36개월 분 보험료 중 18개월 분은 최근 3년 내에 납부
-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일어난 장애 (이 경우 직업위험 보상금 수령)
 - 고의로 발생한 장애
 - 정년퇴직 연령 후 일어난 장애

☐ 사망 (사망한 가입자의 생존 가족에게 지급 가능)

- 보상조건
 - 가입자가 사망전 최소 36개월 분 보험료를 지불했어야 하고 36개월 분 보험료 중 18개월 분은 최근 3년 내에 납부된 것이어야 한다.
 - 퇴직 연령이 지났을 경우 사망 전 퇴직 자격이 있었어야 한다.

☐ 장례보조금

- 가입자의 사망 직전 12개월 중 6개월 분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장례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금액 \$250.00

3) 직업위험 사회보장

직업위험을 커버하는 사회보장제도는 1970.3.31일자 행정명령(Decreto de Gabinete)으로 제정 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구(Caja de Seguro Social)가 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료원 : 법령 제 17호)

파나마 최저 평균 임금 인상 추이

(단위 : US\$, %)

연도	최저 임금	인상률
1996	208.00	-
1998	222.59	7.4
2000	253.76	14.0
2003	263.24	4.0
2006	284.96	8.3

자료원 : 파나마 감사원

참고 : 법적으로 매 2년마다 최저임금을 갱신하나 노사정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정 서비스세, Franchise Tax, 교육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국세

1) 법인소득세

파나마에서는 법인 소득이 50만불 이하인 경우 30%, 5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34%의 법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동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 (연 2.5%), 기계설비 (연 5-15%), 사무기기 및 가구 (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 (연 10-50%)

2)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는 2005. 10. 27일 개정된 것이며 US\$3,000부터 적용된 소득세가 US\$9,000부터 완화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과세기준(US\$)	기초세액(US\$)	초과분에 대한 세율(%)
-9,000	0	0.0
9,000-10,000	0	2.0
10,000-15,000	730	16.5
15,000-20,000	1,555	19.5
20,000-30,000	2,505	22.0
30,000 이상	4,705	27.0

3) 판매세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시에는 판매세가 부과된다.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5%의 판매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담배의 수입, 도소매시에는 10%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판매세는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판매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판매세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며 동 가격에 판매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특정 서비스세

1991년 조세개혁법으로 케이블 TV, 경호수송서비스, 안전금고 임차에 대해서는 5%의 특정 서비스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매월 12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 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 선은 2만불이며 최저액은 10불이다.

6) 교육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 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 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7)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2만불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 30일, 8. 31일, 12.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2만볼 이하는 면세되며 2만볼 이상 5만볼까지는 1.75%, 5만볼 이상 7만5천볼 이하는 1.95%, 7만5천볼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8)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표준가격이란 재정경제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9)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10)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항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32.5%에 상당하는 물품 소비세가 부과된다.

11)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당 4볼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볼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12)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볼,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볼, 환전소는 600볼이다.

13)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 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 하여 재정경제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14) 기타 조세

이 밖에도 호텔투숙세, 유류소비세, 시장영업세, 카지노세, 항공권구입세 등의 조세제도가 있다.

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불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불 정도이다.

(자료원: 파나마 관보, EIU)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8조국으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GAFI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른 바 'tax haven'이라는 말도 듣고 있으며 모든 국내외 금융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자료원: IMF, 현지 실사)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및 특성

파나마는 콜론 중계 무역을 통해 홍콩에 이어 세계 제2위, 중남미 제1위에 이르는 중계 무역 기지가 되었다. 중계 무역을 위한 수입 규모가 약 55억 달러에 이르며 파나마 국내 시장용 수입이 약 35억 달러로 전체 수입시장 규모는 약 90억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콜론 자유무역지역 주요 중계무역상과 파나마 시티에 지역 본부를 두는 선진국 대기업 현지 법인은 그들의 대 중남미 판매 물량 중 상당량을 파나마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국 수입상 앞으로 선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상기 수입 규모보다는 훨씬 많은 거래가 파나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인 파나마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의 70%,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중 3대 주요 서비스 산업은 파나마 운하 운영 사업,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중계 무역, 중남미 금융중심지로서의 금융 산업이다. 반면, 1·2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양식 새우와 바나나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림 수산업은 GDP의 12%, 제조업은 GDP의 9%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제조업 기반 시설이 취약하다.

제조업은 의류, 식품, 건축자재 생산업이 주종을 이룬다. 중남미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 파나마 자체시장은 인구 3백만 명에 불과하여 총수입규모는 U\$ 30억 내외에 그치는 협소한 시장이나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연간 수출입 90~100억 달러의 중남미 최대의 중계 무역 지이다. 우리나라 역시 對 파나마 상품 수출액의 약 80%(선박 제외)가 콜론을 거쳐 남미 각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 비교적 중남미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법인설립 및 운영의 용이, 콜론 자유무역지대 내 영업소득세 면제, 무제한 과실송금 등 자본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대우, LG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지역본부가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각국 상품간의 시장 경쟁이 치열한 콜론자유무역지역이 있어 우리 상품의 대 중남미 진출 근거지 기능을 함과 동시에 물류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파나마에는 외환 은행을 비롯한 한국 주재 상사 및 20개 교포 무역 업체가 있다.

파나마는 미 달러를 법정통화로서 사용하는 국가로 경제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중남미 금융중심지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중남미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를 통한 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결통로이자 남북미주 연결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남미 해운의 중심지이며 편의국적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 국적 등록 선박 수는 세계1위이다. 중미 지역에서 1인당 소득이 비교적 높은 시장 이다. 그러나 부의 편재가 심하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성향이 대단히 높으며 값싼 제품보다는 고급품 위주의 구매 패턴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다수 서민의 경우 가격 위주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품의 아성을 깨고 한국, 일본 등의 제품이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나. 콜론자유무역지대

콜론 자유무역지대 중계 무역은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 직접 무역 확대 추세로 그 기능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파나마 경제 및 중미 지역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파나마 국민소득의 7% 정도를 창출할 만큼 파나마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 한편 콜론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중계 무역에서 수입 및 재수출 가격 간의 차이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콜론 입주 중계무역상들의 판매 마진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국제 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추세를 반영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며 사치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수입해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파나마 콜론 자유무역지역의 수입 및 재수출 규모는 110억 달러로 홍콩을 능가하는 등 서반구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담당하고 있다.

파나마에서 약 80km 떨어진 콜론자유무역지역에는 2천 여개의 중계무역업체가 입주해 있고 3개의 국제항구와 인접해 있어 수출입 업무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최근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콜론지역을 통과하는 유람선 수가 증가하는 것도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실은 유람선으로 관광객 1인당 5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콜론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다. 파나마 중국계 비즈니스

파나마 내의 소매, 잡화, 미니슈퍼마켓 중 90%는 중국인 소유의 비즈니스이다. 19세기 중반 파나마에 철도가 처음 생길 때 철도를 건설하는 데에 종사하기 위해서 온 중국인 노동자가 최초이다. 20세기 초 파나마운하 건설 당시 파나마에 건너온 때부터 시작해 이제 중국인 3세대, 4세대에 이르면서 중국인 비즈니스는 파나마 경제의 보이지 않는 구석 구석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비즈니스는 일상생활용품, 식품 등 상품의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성업을 이룬다. 파나마 시내의 일반소매상점은 물론이고 산골벽지 말림의 초라한 구멍가게까지 어김 없이 중국인이 운영한다. 겉보기에 중국인은 파나마인의 열사와 천대를 받지만 실제로 이들 중국인의 보이지 않는 경제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질시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인구 약 300만 명의 파나마 전역에 중국인 인구는 5%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약 1만개 있다. 주로 저소득층, 서민, 빈민 등을 상대로 하는 저가품이지만 워낙 저변의 시장이 넓고 모두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판매는 엄청나다. 아무 때나 가서 25센트 동전 한 닢으로 맛있는 빵을 사서 요기할 수 있는 곳이 이 중국인 가게이다. 구멍가게뿐 아니라 차 부품 쪽으로도 중국인들이 업종을 확대, 중국이나 대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국 제품에겐 큰 경쟁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형 슈퍼마켓체인이 다수 들어서면서 중국인 비즈니스와 새로운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후에는 중국인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누려 온 독보적인 지위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서구식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상승한 반면 중국인 가게 등 소매업에 대한 선호도는 차츰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파나마라는 나라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차츰 소비자들의 구매방식도 다양화해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국인 소매 비즈니스와 슈퍼마켓은 그 시장이 다른 면이 많다. 전자는 인구 밀집 저소득층, 벽지, 지방, 변두리, 일반 주택지 등인 반면 슈퍼마켓은 도심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Procter and Gamble 파나마 현지법인 사장인 David Jimenez 씨의 의견이다. 중국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소비자에게도 매우 싼 가격으로 팔지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평균 30%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출신지역인 중국의 광둥 지방 친지, 업체 등과 긴밀한 연고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인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 오늘날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제품의 아성을 극복하고 그 수준에 맞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 유통구조 개요

파나마는 제조업이 매우 미약한 관계로 유통구조는 수입품 유통이 주종을 이룬다. 파나마의 유통구조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된 물품이 일부 파나마 국내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 전달되는 체계와 대형 연쇄점이 물품을 직접 수입 또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여 일부 물량을 자사 연쇄 체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二元化 한 구조다. 콜론 중계무역상은 대부분 수입업체 겸 도매상으로 외국으로부터 또는 콜론 외국 업체나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중남미 다른 국가 바이어에 재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 공급한다.

파나마의 도매 유통은 대부분 콜론을 통해 수입된 물량 중 일부가 도매상을 통해 파나마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파나마 도매상이 콜론 내 외국기업 현지법인이나 콜론도매상 겸 수입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도매 유통마진율은 대부분 10% 수준이나 대규모 체인점 또는 수입상이 콜론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마진율이 30% 이상 된다.

소매유통은 비교적 큰 규모의 연쇄점과 일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쇄점은 주로 가정용 전기제품, 의류, 화장품, 문방구류, 완구류, 가구 등을 취급하며 최근에는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재 판매의 65%는 파나마 시가 차지하며 나머지 35% 정도는 David, Colón, Santiago, Chitré 등의 도시 몫이다. 일반적으로 파나마에서는 수입상이 도매상, 소매상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다. 의류, 자동차 부품, 컴퓨터하드웨어 부문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며 독점 에이전트, 대리점 등의 제도도 널리 이용된다. 주요 수입상 대부분은 파나마 시내뿐 아니라 콜론 자유무역지역에 유통채널을 갖고 중계무역에 종사한다.

국내 제품, 수입품 간에 차별은 전혀 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현지에 와서 소매유통업에 종사할 경우 약간의 규제가 있다. 파나마 업체와 독점 에이전트 등의 계약을 맺을 경우 이를 규정하는 국내법은 없으며 오직 해당 외국 업체와 파나마 국내업체 간의 계약에만 의거할 뿐이다. 따라서 만약의 분쟁 발생 경우나 계약 종료 시에 대비해 상호 간의 권리의무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은 고급 제품에 관한 한 미국 문화와, 산업규격, 제품에 대한 향수가 강하다. 이것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제품이 주도하는 남미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일반 서민의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저가의 중국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중계무역업체를 방문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품의 최종 시장 가격은 제품이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유통 단계별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CIF 가격: US\$100.00

수입관세: US\$10.00

합 계: US\$110.00

도매 가격: US\$137.50

소매 가격: US\$171.88

마. 파나마의 대형유통망

파나마의 대형유통망이라고 할 만한 업체를 들라면 El Rey, Super 99, XTRA, Machetazo, Riba Smith 등 슈퍼마켓 체인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업체는 일반 소매상권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그 외에도 Price Smart라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할인매장이 있으며 미국 등지의 중급 품을 일부 판매 시도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을 그리 높지 않다.

위의 4개 슈퍼마켓 체인이 일종의 "왕국"을 형성해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물품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파나마 국내의 수입상, 에이전트 등을 통해 구입한다. 물론 중국 제품처럼 가격경쟁력이 아주 우수한 경우 드물지만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간에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나마의 소매유통은 비교적 큰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과 일반 상점으로 구성된다. 슈퍼마켓 체인은 주로 가정용품, 의류, 화장품, 문방구류, 완구류, 가구 등을 취급하며 최근에는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보다는 100% 가격 경쟁이다. 소비재 판매의 65%는 파나마시가 차지하며 나머지 35% 정도가 David, Colon, Santiago, Chitre 등의 소도시 몫이다. 일반적으로 파나마에서는 수입상이 도매상, 소매상까지 겸하는 경우도 많다. 유통 체인의 최종 시장가격은 제품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인 슈퍼마켓 유통 단계 별 마진율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에이전트 → 슈퍼마켓 체인: 수입가의 20~30% 마진 형성
- 슈퍼마켓 체인의 소매: 상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마진 형성(식품 15~20%, 일반 공산품 및 가정용 제품 25%, 건축자재 및 부속품 종류 30~40%)

El Rey, Super99, XTRA, Riba Smith, Machetazo 중에서 가장 큰 곳은 Super 99로서 전국 27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이 유통조직에 납품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해 문의한 결과, 구매조직은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각 산하 체인의 수요량을 파악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산하체인이 위치한 지역, 소비자, 소득수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산하체인의 요구에 의해 구매한다. 그러나 산하체인이恣意的인 결정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산하체인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찾는 물품을 파악해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들 유통업체의 각 제품별 담당자는 대부분 가장 밑바닥 점원에서부터 시작해 그 상품 분야에는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시장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학력수준이 낮고 어디까지나 실무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다. 공급업체 직원에게 저속한 말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그만큼 이들 유통업체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종의 과점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매자 시장"이 되어 있어서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XTRA는 유대인 자본으로 최저가 중국제품 위주의 판매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4월 중국 광둥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방문해 수시로 제품을 물색한다. 품질, 고객만족 같은 미사여구는 고루한 넌센스에 불과하며 1센트를 받고서 팔더라고 싸게 팔 수 있으면 그것으로 목적은 달성한다는 정책이다. 빗자루를 1불 받고 팔아서 소비자가 사면 되는 것이지 파나마가 무슨 선진국이라고 품질, 디자인을 생각하느냐는 것이 이 업체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이 업체가 공급업체 대할 때에는 제품이나 품질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일단 가격부터 묻는 것이 100%이다.

El Rey, Super 99는 그나마 품질이 조금 나은 제품을 팔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파나마로 치면 중산층이다. 기본적으로 이 두 업체도 역시 가격전쟁을 벌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나 이 두 업체가 가장 잘 알려진 유통체인업체이다. Machetazo는 쿠바인 자본으로 설립된 슈퍼마켓인데 역시 XTRA와 비슷한 수준의 물품을 판매 한다. 최근에 설립된 Riba Smith는 그나마 고급품을 조금씩 진열하기도 하지만 파나마의 소득 분배 구조상 고급제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점유율이 높지 못하다.

이들 대형 유통체인 시장은 한 마디로 구매자(유통체인)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이들 소유주 경제력, 정치 영향력이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회의원, 고위관료, 타 주요 기업체 사장 등이 이들 유통업체와 친척인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실례이다. 다민족 소국가 파나마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한 민족이라면 유대인을 들 수 있는데 XTRA 사장이 유대인이다.

물품은 항상 공급업체의 책임 하에 직접 슈퍼마켓에 배달해 주어야 한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수하면서 공급업체가 슈퍼마켓의 창고까지 인도해 주고 검수를 받는 것이 상례이며 슈퍼마켓 체인업체는 이러한 공급업체의 어려움, 노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슈퍼마켓 체인과 비즈니스를 맺을 경우 상시적인 물류(logistics)조직, 운송장비를 갖추어 24시간 구동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이다. 보통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 인도시한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물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100% 반품에다가 물건 값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금 결제는 100% 외상 결제이다. 슈퍼마켓 체인 치고 현금으로 즉석 결제해 주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으며 보통 120일, 150일, 길게는 1년, 2년까지 대금 결제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대금 지불 지연으로 재판을 걸어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도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지닌 이들 업체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법적인 해결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늦더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늦게 주는 것을 클레임 해보아야 "싫으면 관두라"는 식의 반응이라고 한다. 그것도 최초 납품하는 경우에는 공짜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모든 것이 전통적으로 파나마가 제조업, 산업이 아닌 유통, 물류, 중계무역 등 상업 위주로 살아온 특성에 연유하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아 가격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 공급업체 보다는 구매업체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체인에 가보면 일부 원산지가 제한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의 경우 중국 제품 일색이다. 물론 이러한 구매 정책으로 소비자가 그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의 경제 불황 및 경기부진을 견뎌온 이점도 있다.

파나마에는 우리나라나 선진국 같은 대형 고급품 백화점이 없다. 슈퍼마켓을 제외한 파나마의 소매, 잡화, 미니 슈퍼마켓 중 90%는 중국인 소유의 비즈니스이다. 19세기 중반 중국인이 파나마 철도 건설 당시 파나마에 건너온 때부터 시작해 이제 3세대, 4세대에 이르면서 중국인 비즈니스는 파나마 경제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완전히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인 비즈니스는 일상 생활 용품, 식품 등 상품의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성업을 이룬다. 파나마 시내 소매상점은 물론이고 산골 벽지 밀림의 초라한 구멍가게까지 어김없이 중국인이 운영한다. 겉보기에 있어 중국인들은 파나마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같으나 실제로 이들 중국인의 보이지 않는 경제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질시를 받는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인구 300만 파나마 전역에 중국인 인구는 5%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는 약 1만 개로 알려졌다. 주로 저소득층, 서민, 빈민 등을 상대로 하는 저가품이지만 워낙 底邊의 시장이 넓고 모두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판매는 엄청나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시골 구멍가게를 연상하게 하는 초라하고 냄새 나는 중국인 가게에 아무 때나 가서 25센트 동전 한 닢으로 맛있는 빵을 사서 요기할 수 있다. 구멍가게뿐 아니라 차 부품 쪽으로도 중국인이 업종을 확대, 중국이나 대만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국 제품에게 큰 경쟁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인 소매 비즈니스와 슈퍼마켓은 그 시장이 다른 면이 많다. 전자는 인구 밀집 저소득층, 벽지, 지방, 변두리, 일반 주택지 등인 반면 슈퍼마켓은 도심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인 소매상의 특징은 소비자에게도 매우 싼 가격으로 팔지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평균 30%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출신 지역인 중국의 광둥 지방 친지, 업체 등과 긴밀한 연고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통망을 운영한다.

파나마에 대한 수출유망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나마가 중남미 중계 무역지로서 중계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파나마는 중남미에서도 빈부차이가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로 중산층이 매우 얇은 특징을 가진다. 수요계층이 이렇다 보니 소비재의 경우,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유럽, 미국, 일본산 고급 브랜드제품 시장과 대다수의 서민을 위한 중국, 동남아 등 저품질 저가격 시장이 양립해 있다. 한국산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가 품질의 우수성은 인정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 고급품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서민층 수요에 대해서는 중국, 동남아산 저가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 제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소비자 인식 등에 있어서의 진출 제약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망 진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시장상황 및 폐쇄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納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들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중개상을 통해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중개상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 중간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제품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파나마 나 인근 중남미 현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종 비용이 절감되므로 가능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유통업체 간의 가격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지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 제품의 진출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 업체의 경우 파나마 중계무역상이나 유통업체가 잘 찾는 매년 4월의 광둥 전시회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중남미 현지생산을 활성화해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후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최근 한국산 라면이 파나마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활발히 판매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한국산 라면은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 제품보다 맛이 좋으며 가격 또한 매우 경쟁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도 판매 전망이 좋은 편이다. 이와 같이 소비재, 생활용품, 문구류, 전기제품, 과자, 청소용품 등 위주로 가격경쟁력만 확보한다면 파나마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현지 실사)

2. 물가정보

도시: 파나마(파나마)			환율: US\$1 = Balboa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399	7.1	구두(1켤레, 소가죽)	100
1.2	넥타이(1개, 실크100%)	50	7.2	치약(150g, 1개)	1.75
1.3	와이셔츠 (1벌,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5	7.3	칫솔(1개)	2.12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0	7.4	면도기(1세트)	3.4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219	7.5	건전지(1세트, 1.5V AA)	1.4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6	7.6	화장지(1통, 300매)	2.95
1.7	청바지(Levi's)	54.5	7.7	비누(1개)	1.53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2.37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0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1	8.2	볼펜(12개)	1.62
2.3	닭고기(1KG, 생닭)	2.31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3
2.4	쌀(1KG, Short Grain)	2.2	8.4	공CD(1통, 12개입, 700MB)	4.7
2.5	밀가루(1KG)	0.95	8.5	휴대폰(범용형)	150.99
2.6	설탕(1KG, 백설탕)	0.68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5.5
2.7	계란(10개)	1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 설치)	25
2.8	감자(1KG, 현지산)	1.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50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22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5,000
3.1	고추장(1Kg)	5	9.2	엔진오일(1L)	4.20
3.2	된장(1Kg)	4.3	9.3	휘발유(1L)	0.85
3.3	라면(1개)	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50
3.4	설령탕류 (1인분, 설령탕, 곰탕 등)	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
3.5	불고기(1인분, 200g)	8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7	10.2	시내버스(1구간)	0.25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25
4.1	햄버거(1개)	2.99	10.4	택시(추가요금/Km)	0.25
4.2	피자(1판)	12.99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9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무료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0.69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6.27
4.5	담배(수입산, 1갑)	1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02~0.03
4.6	위스키(1병, 750ml)	25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15
4.7	커피(1병, 175g)	6..35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0.79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2
5.1	[임차] 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2,0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0.6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3,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264.23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8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80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4.37
6.1	TV(29인치, 칼라, 범용)	350			
6.2	VTR(6헤드, 범용)	80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롬보)	200			
6.4	전자레인지	12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37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Split Type)	300			

도시: 파나마(파나마)			- 환율: US\$1 = Balboa1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2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63.24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Bilingual School)	2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ISP)	8,50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12.7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6,428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3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7,16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8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8,280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
13.1	골프장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8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15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매매가능,종신양도가능)	13,5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13.3	골프공(1타)	28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299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5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55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3.9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없음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20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8%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45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15			
14.4	치과(스케일링, 1회)	45		※18.7 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 유력지)	8.33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19.7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4.25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20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5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8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65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5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7.5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0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500			

자료원: 현지 실사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파나마에는 산업별 각종 협회가 존재하나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이 주된 역할이며 협회 회원 업체 리스트가 수록된 디렉토리, DB 제작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업체 검색에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소스는 전화번호부의 옐로페이지, 상업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Guía 전화번호부 그리고 콜론자유무역지대 업체 디렉토리인 FOB 등이다. 특히 FOB의 경우 모든 페이지가 칼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제품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업체명, 품목명 순서로 나뉘어 있어 업체 검색에도 편리하다.

파나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는 파나마종합박람회(Expocomer)이나 미국, 주요 중남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부스 수가 더 많으며 파나마 업체의 부스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05년부터 파나마상공회의소에서 파나마 기업으로만 구성된 박람회인 Expo Camar를 개최한 바 있으며, 파나마 거래선 발굴을 위해서는 동 박람회와 같은 행사가 더 적합 하다.

중남미 교역 활성화를 위해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한 거래선 발굴은 위에 언급된 FOB지에 수록된 지도를 참고,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위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콜론 입주 업체들의 경우 외부로부터 방문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파나마 시티에서 따로 미팅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자료원 : 현지 실사)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파나마는 온라인 상의 정보 양이 적고 내용 또한 부실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검색 엔진을 통해 발굴 한다든지, 특정 분야의 협회 홈페이지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효율성이 매우 낮다. 적절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파나마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panacamara.com/)에서는 분야별 멤버 리스트를 공개 하고 있어 관심 품목에 따라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 Directorio de Miembros > Por Sector의 메뉴를 클릭, 업체별 주요 연락처 및 업태, 수출입 품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업체별로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직접 업체 홈페이지로 이동,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자 협회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홈페이지(www.auzonalibrecolon.com)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파벳 별로 소팅이 되어 있어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역시 Directorio de Miembros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두 홈페이지는 스페인어로만 운영되고 있어 관심 품목명을 스페인어로 확인한 후 검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자료원 : 파나마 상공회의소, 콜론자유무역지대 입주자 협회)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사항

특이한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는 편이나 매년 2-3 월에 개최되는 '물의 축제' 기간 중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때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물세례가 한 해의 재앙을 막아주는 축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세례 대신 색종이 가루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또 국민 중 다수가 흑인 또는 흑인 혼혈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종적 편견, 차별감 등을 절대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콜론자유무역지대 등 주요 유통업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전자제품시장은 인도계, 직물시장은 아랍계, 기타 중소 슈퍼점은 중국인계의 점유율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인종, 종교문제 등 민족문제에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은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파나마 내국인에게 있어서 대미관계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나 미군 주둔 시 파나마 대학생이 미군 관할 구역 내 파나마국기 게양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노리에가 집권 시 미군침공 사태 등이 있어 반미감정이 높은 파나마 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나마 주권과 관련된 지나친 친미적 언사나 정치·외교적 견해는 삼가야 한다. 특히 다른 중남미 국가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예: 코스타리카 가니까 날씨가 파나마보다 훨씬 좋더라, 콜롬비아 가니까 여자가 파나마 여성보다 더 이쁘더라, 멕시코 음식 맛이 더 좋더라, 칠레 가니까 매우 발전되어 있던데, 파나마는 왜 그 모양이야? 등등)

나. 비즈니스 에티켓

상담을 위하여는 사전 약속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며 상담 시 복장은 정장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콜론 중계무역상은 영어를 잘 하나 스페인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스페인어로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파나마 시장은 중계무역의 특성상 품질보다는 가격을 위주로 하는 재수출용 수입시장인 만큼 가격 위주의 상담진행이 효과적이다. 이 쪽의 가격을 보이기 전에 그들의 수입가격을 먼저 물어보면 대부분 선선히 그들의 수입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바이어가 많으며 심지어 경쟁수출업체의 오퍼까지 보여 주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품질상 장단점을 솔직히 비교 분석해 주면서 그 가격에 근접하게 또는 경쟁력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상담은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파나마 국내시장을 상대할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협소(인구 3 백만)하기 때문에 필히 소량다품종 수주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중국, 동남아 국가에 가격경쟁이 밀리는 품목이라도 고정거래처를 확보할 수도 있다.

라. 미국 제품에 대한 향수, 중국 제품 선호

전통적으로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 의해 관리되었고 미국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게 때문에 미국의 문화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 문화, 제품, 규격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웬만

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미국을 자주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산업제품, 일반 생활용품 등의 면에서 미국적인 디자인, 산업규격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미국 제품이 전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이다. 미국과의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말로는 미국인을 욕하는 태도와 상반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용품, 소비재 등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제품도 하루 빨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료원: 현지 실사)

마.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현지 독점대리점권 부재

파나마의 많은 업체가 특정 외국 업체와의 장기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취급하는 현지 대리점 일수록 이러한 거래상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외국 유명 상표를 독점적으로 국내 공급하던 업체가 대리점권을 상실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외국 업체가 파나마와의 거래에 있어 현지 대리점권을 쉽게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파나마 국내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89년까지만 해도 파나마에서 독점대리점권에 의거한 수입유통 비즈니스는 대단히 호황을 이루었다. 1969년 발표한 내각행정명령(Decreto de Gabinete) 344호 및 1984년 제정한 법률 제33호(Ley 33) 등은 외국 제품 독점 대리점 권한을 취소시킬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업체가 파나마 현지독점대리점권을 바꾸는 것은 매우 높은 비용을 수반했다.

그러나 89년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 때 대법원이 이러한 독점대리점권 보호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외국제품 독점대리점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법률에 보호받는다고보다 독점대리점권은 그야말로 해당 기업체끼리의 순수한 계약 및 신의성실에 입각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자유경쟁과 시장자유 원칙을 들어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당시 정권의 압력에 의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렸다는 설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치로 파나마 기업은 하루아침에 외국제품 유통에 있어서의 법적인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외국 업체와 체결하는 독점대리점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외국 업체에게 큰소리치는 시대가 가고 외국 업체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대리점 변경 시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이냐고 까다로운 요구를 제시할 경우 외국업체에게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나마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매우 심각하다. 다수의 유명 외국 기업체는 현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매장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파나마 업체가 현지 대리점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 생산업체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제품 마케팅을 하는 등 투자해야 하고 마진도 20% 선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자금력 없는 중소기업체는 죽을 지경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도 어떤 특정 상표의 독점 대리점권을 갖고 있을 때는 그나마 재미가 있었는데 이를 취소당하면 그 매출액이 100%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89년 이후 수입업체 보호를 위한 법령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물결에 어쩔 수 없이 적응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어떤 한두 개의 특정 상표에만 집중하기 보다 상품 관련 지식을 넓혀 거래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파나마 수입업체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L'Oreal 때문에 빈사 상태에 한 때 놓였던 Ricardo Candanedo도 다른 상표를 수입할 있게 되었고 Cosmetics Selectos社도 여러 상표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파나마 업계의 상품수입선 다변화는 생존전략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 시에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파나마 업체는 일단 외국 업체와의 상담에서 제품이 마음에 들면 바로 독점대리점권을 요구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그만큼 대안을 많이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한국이라는 나라의 업체와 거래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들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파나마 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상품 수출 증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결혼”을 이루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로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파나마의 경우뿐 아니라 사정이 비슷한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

□ 거래시 유의사항

콜론자유무역지대는 D/A, D/P 등 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오랜 거래관계를 통한 신용사회의 구축이라는 일면도 있고 또 중남미 경제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월 이자가 지역에 따라서는 20-30%였던 곳도 있어 상품단가를 인하하는 것 보다는 3-6 개월의 외상을 주는 것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훨씬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전자제품, 직물 등 콜론자유무역지대 주력 상품은 외상거래가 관례화되어 있다.

그러나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초기에는 T/T, L/C at sight 등 정상거래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정도이다. 일정 기간 거래 후 바이어의 수입 규모나 거래상태를 보아가면서 D/A, D/P 거래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필히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파나마 및 콜론자유무역지대 경기 부진으로 현지의 유력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신용상태 좋은 바이어라도 반드시 수출보험 활용이 요망된다.

(자료원: 현지 실사)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파나마는 소매업, 의료, 통관대행사, 방송 등 일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 개발은 특별 제한 및 규제를 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인 심사를 통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 개발과 같은 공공성 및 수익성이 높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파나마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조업, 건설업, 관광, 보험, 은행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이 없으며 파나마 산 부품 및 기자재 사용 의무도 없으나 고용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의 현지인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흔히 지적하고 있으며 파나마-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제조업이 전체 GDP의 9%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조업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연관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평균임금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통신, 전력 등 산업 인프라 요금이 비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예: 마킬라도라 산업)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조립산업 등은 콜론자유무역지대 라는 중계 무역기지에 대한 마케팅과 파나마운하 양안 항구를 이용한 대중남미 물류기지 역할을 함께 활용할 경우 잠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물류 절감 비용이 제조나 단순 조립 시설유지 추가발생 비용 보다 높고 콜론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마케팅 및 공급기간 단축 등이 강점으로 작용해야 성공적인 투자진출이 가능하다.

한편 무역거래시, D/A, D/P 등 외상 거래가 주종을 이루는 거래 조건의 경우 사고위험이 크다. 이러한 리스크 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부보로 외상거래를 관리함은 물론 계약서나 Confirmed Offer 상에 ‘분쟁시 우리나라(또는 파나마) 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삽입과 양측 대표 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서류가 있으면 문제 발생 시 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내용)가 양국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삼성전자의 프로젝션 TV 시장 진출 성공 사례

1) 일반현황

“1强 多弱 體制”로 알려진 세계가전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이 중남미에서 서서히 일고 있다. 중남미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 전자가 세계 가전시장에서의 절대강자로 알려진 일본 Sony를 제치고 최강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Sony 브랜드만을 고집하던 중남미의 부유층들이 이제는 삼성전자와 LG 전자제품으로 선호 브랜드를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남미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PJTV (프로젝션 TV) 이다. 2001. 10월에 새로 출시된 PJTV에서 삼성 전자가 Sony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시장 점유율 우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현지 마케팅 전략

삼성전자의 PJTV 중남미 시장 진출 성공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바로 ‘품질’에서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중남미에서 더 이상 “多弱” 브랜드가 아니다. 이제는 Sony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점차 Sony를 추월하는 최강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브랜드 이미지만 제고한다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브랜드 이미지제고와 함께 “제품의 품질”이 상호 상승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가전 비즈니스에 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장기적인 기업 성공의 열쇠임을 인식하고 삼성전자 해외법인 특히 중남미 현지법인(파나마)에서는 “삼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파나마법인은 매년 연간 매출액의 10%를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마케팅 소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투자와 개별 제품 판매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TV 광고, 신문광고 등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활동 이외에 중남미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인기 가수 공연” 초청 행사 등 각종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판촉활동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각종 ‘파나마 불우이웃 돕기’ 행사이다.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외국기업이 현지에 나와서 돈만을 벌어가 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파나마 부유층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친숙하고 우정과 애정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중남미시장에서의 파나마 PJTV 성공 사례는 삼성전자의 이와 같은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 품질 경쟁력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PJTV 는 다른 경쟁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월등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 주요 가전브랜드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파나마 가전 전문 체인점인 Panafoto 50번가 체인점에서 만난 Panafoto사의 세일즈맨은 삼성전자 PJTV 의 성공 사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Panafoto 의 세일즈맨은 삼성전자 PJTV 와 함께 진열된 Sony PJTV 의 화면을 보여 주면서 PJTV를 찾는 소비자들이 처음 와서는 Sony 제품을 찾다가도 두 제품의 화질을 비교해 보고 바로 삼성전자 PJTV를 구입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매장에 나란히 진열된 제품에서 삼성전자의 PJTV는 Sony PJTV 보다 화면이 밝고 선명하였다. 아울러 삼성전자 PJTV 는 Sony 사 제품과 마찬가지로 스크린 구성이 평면에 16:9 비율인 WIDE 화면에 HDTV 디지털경용이기 때문에 현행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세일즈맨의 설명을 듣고 디지털방송을 생각해서 구입을 미루는 소비자들도 바로 구매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중남미 전역을 통해 완벽한 A/S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3) 시장성과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와 HDTV 의 품질경쟁력은 바로 시장점유율로 나타나고 있다. 동 제품이 2001. 10월 HDTV 가 파나마에 처음 출시된 이후 2006년에 삼성전자가 4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으로써 Sony를 추월하였으며 금년에도 이와 같은 시장 점유율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나마의 PJTV 시장점유율

브랜드명	삼성전자	LG전자	Sony	Panasonic
시장점유율	45%	17%	36%	2%

자료원: Panafoto 본사

주: 2006년 기준임

삼성전자(파나마)에 따르면 브라질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중남미지역에서의 PJTV 수요는 2006년 약 2만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PJTV 가 9,000대 이상을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45% 이상을 점유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PJTV 중남미 진출 성공 사례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전업계의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에 초석이 될 것이다.

나. 로만손 시계의 손목시계 시장 진출 성공 사례

1) 일반현황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산 시계 수출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로만손 시계가 중남미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중남미 고급 시계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국산 시계 수출이 어려운 것은 중남미의 수요 구조가 우리 수출상품의 구조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중남미는 수요구조가 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산층이 매우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의 수요구는 품질과 디자인은 우수하지만 브랜드가 없다는 단점을 가진 한국산 시계의 진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남미에서 빈부 격차가 심하여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롤렉스, 오메가, 브로바 등 고급 시계만을 선호하고 돈이 없는 서민층들은 3~5 달러짜리 저가 홍콩산 시계만을 찾다 보니 수출 가격이 20~40 달러대로 평균 100 달러 내외로 판매되는 한국산 시계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로만손 시계는 중남미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며 고급 브랜드로 매년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현지 마케팅 전략

로만손시계가 '90년대 처음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에도 지금과 시장상황은 별반 다른 점이 없었다. 파나마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의 시계 바이어들은 한국산 무명 브랜드인 로만손 시계를 보면서 브랜드도 없고 가격은 비싼데 이게 제대로 팔릴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만을 보였다.

놓고 가려면 놓고 가세요' '매장에 진열해 놓았다가 팔리면 팔리는 대로 돈을 드리지요' '그러기 싫으면 관 둡시다...." 한 마디로 바이어들이 한국 산 시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로만손 시계에서는 중남미시장 진출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평소에 잘 알고 있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에 소재 교포무역업체인 Gold way 사에 중남미 유통을 맡기게 되었다. 물론 로만손사는 파나마에 현지법인 설립 등도 검토해 보았으나 시장 진출 초기단계에 법인설립이 가져오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믿을 만한 교포 무역업체에 중남미 시장 유통을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로만손시계의 중남미 수출을 담당하게 된 파나마의 Goldway 사는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 정상적인 수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초기 시장 진출 단계에서는 위탁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즉 주요 시계 체인점을 대상으로 시계를 공급하고 팔린 다음 돈을 받는 위탁판매를 통해서 시장 진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Goldway 사는 이와 같은 위탁판매로 일단 로만손 시계를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었으나 브랜드 이미지 정착 없이는 절대로 궁극적인 시장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Goldway 사는 중남미의 타겟 수요층을 선정하고 브랜드 홍보에 나선 것이다. 어차피 대다수의 서민층은 \$100 이나 하는 로만손시계를 구입할 구매력이 없으므로 소수의 부유층과 매우 얇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기로 한 것이다.

Goldway 사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제품의 구성을 과감하게 변경한 것이다. 로만손 시계는 판매가격 100불 내외가 주 수출품이나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로렉스나 까르띠에르 등과 같은 최고급품과 동일한 상품을 일반 수출품과 같이 시장에 선 보이기로 한 것이다. 즉 Goldway 사에서는 취급 제품중 일부를 판매가격 1,000불에서 최대 5,000불의 최고급품으로 구성하여 맛보기로 시장에 내놓고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손목시계는 백금이나 순금 도금 제품이 주종을 이루지만 이러한 최고급시계는 흠집이 나지 않는 최고급 사파이어 글라스에 내장 역시 도금이 아닌 다이아몬드나 18k 순금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동 제품들은 로만손시계의 스위스 주문품으로 소량 제작되어 파나마에 수입된 것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항공 기내잡지에 매번 제품 광고를 게재 하고 미디어 광고, 여성잡지 광고, 그리고 도로 주변의 입간판 제작 등을 통해 로만손 시계의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시계 취급점 등을 대상으로 한 제품 설명 리셉션 등을 주최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홍보 전략과 병행하여 중남미 각국별로 딜러를 선정하여 이들 딜러로 하여금 마케팅을 담당하고 마케팅비용 중 일부를 Goldway사에서 로만손 본사의 지원으로 지원하는 딜러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로만손 시계의 품질의 우수성으로 실제적으로 A/S 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A/S 체제 구축 대신에 제품 하자에 대해 100% 무상 교환 체제로 A/S 체제를 운영하였다. 고급품으로의 정착을 위해 조그만 흠집이나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즉시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전략을 통해서 로만손시계가 고급품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였다.

3) 시장성과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덕분에 중남미에서 로만손시계는 중가품 시계가 아닌 고급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의 성과로 로만손시계는 중남미지역에 연간 50만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 내외의 높은 수출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남미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중남미의 경기가 호전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배경으로 수출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임차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나, 일반 주택은 도난에 문제가 있어 아파트(벌레 및 방범을 고려하여 6층 이상 유리) 입주가 편리하며 상사 직원들은 주로 Paitilla, O'Barrio, Marbella 지역에 살고 있다. 주택 계약은 주재국 주택 관련법에 의한 계약서(소정 양식)로 작성되며 일부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부속계약서를 첨부하게 된다.

1) 입주 시 유의사항

최근 신축한 아파트도 많으나 1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배수관계, 출입문, 에어컨 설치 여부 등 각종 시설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집 안 구석구석 조그마한 탈이 자주 난다.

2) 계약 종료 시 원상 회복관계

본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외에 사용에 의한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으며 주택 이전을 원할 시 통상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하면 된다.

나. 은행 구좌 개설

파나마는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로 200개 이상의 외국은행 지점이 진출해 영업 중이며, 한국 외환 은행도 진출해 있어 은행구좌 개설은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외환은행은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현지 타국 은행지점(Citibank등)이나 파나마 시중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 부임한 주재원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한도액만큼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 이사 화물

현지 TV 및 VCR은 한국과 같은 NTSC방식이며 전기는 110볼트를 사용한다. 주택 임차 시 가구 포함 여부는 아파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서울에서 쓰던 가구를 가져 오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자동차 딜러가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외국차가 진출해 구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판매가도 적절한 편이다. (EF소나타 소매가: 14,000달러 수준)

이삿짐 발송은 보통 Door-to-Port로서 파나마의 하역항에서 자택까지 운송료(US\$ 100-200) 및 통관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중간에 이삿짐 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라. 한국 식품 조달여건

파나마에는 중국인 식품점(Minimax)이 있어 배추, 파, 무, 두부 등 필요로 하는 식품 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야채 시장, 생선 시장에서 현지 생선이나 야채 등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중국인 식품점(Minimax)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 식품 종류가 많지 않고 유통 기한이 지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쌀은 캘리포니아산 또는 일본산 수입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가끔 재고가 없어 구입에 곤란을 겪을 때가 있다. 따라서 한국 식품은 현지에서 구하지 않고 한국에서 인편을 통해 가져 오는 경우가 더 많다.

마. 생필품 조달

EI Rey, Super99 등 대형 슈퍼마켓이 잘 발달되어 있어 각종 생필품 구입은 어려움이 없다.

바. 레저 여건

외국인을 위한 레저 시설이나 특별한 문화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파나마 시티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주말을 즐기기에 그런대로 좋은 대자연이 펼쳐져 있다.

- 골프: 파나마 시내 중심에서 20분 내외 거리에 2개의 코스가 있으며 회원 가입 용이
- 테니스 및 수영: 호텔 스포츠클럽, 해변, 아파트, 풀에서 테니스 및 수영 가능
- 낚시 및 잠수: 콜론(파나마에서 90분 거리) 지역에는 천혜의 바다 낚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안이 있음.
- 여행:
 - Cerro Azul: 시내에서 1시간 거리로 해발 3,000ft고지. 기온이 15도로 시원
 - Coronado: 시내에서 90KM 거리에 있는 해안지대로 수영, 골프, 숙박 시설 겸비
 - El Valle: 시내에서 2시간 거리로 시원한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동식물원, 폭포, 승마 등을 즐길 수 있음.
 - Contadora: 비행기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태평양 상의 관광휴양지로 호텔 시설이 있고 낚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음.
 - Chiriquí: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7시간 걸리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로 등산과 이국적인 꽃과 커피농장을 볼 수 있음. 무더운 파나마에서 벗어나 한국의 가을철과 비슷한 기후와 고요함을 즐길 수 있음.

사. 병원·약국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비로 보통 U\$ 3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은 약국에서 별도로 구입하여야 한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 수준이나 의료시설은 좋은 편이다.

아. 치안 상태

치안은 안정되어 있으나 일부 빈민층이 사는 지역이나 야간에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미군의 침공 이후 총기 소지자가 많아 간혹 총기사고도 발생한다. 최근 경제가 불황을 계속 하면서 강도, 도난 등의 사고가 빈발한다.

자. 자녀 교육여건

한국인 초중고생 자녀는 주로 ISP(International School of Panama)와 발보아 아카데미(Balboa Academy)에 다니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스페인어와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한국인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이 이 학교에 다닌다. 발보아 아카데미는 미군이 주둔하던 당시 미군 자녀들을 위해 운영하던 학교(Fort Clayton에 위치)였으나 이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SEK International Institution, Saint Mary School, The Oxford School, Oxford International School 등 bilingual school이 있다.

3~5세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 상기 학교 유치원에 다니거나 Happy Kids 등 파나마 시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닌다.

1) 초·중·고 교육

- 학제 개요
 - 초등교육(Primaria): 6 년
 - 중등 교육(Secundaria): 6 년
 - 의무 교육년수: 9 년
- 교육비: Balboa Academy의 경우에는 입학 기부금 6,000 달러에 분기당 1,500 달러 (중학교 이상, 국민학교는 분기당 1,240 달러), ISP의 경우 입학 기부금 8,500 달러에 분기당 1,500 달러 내외임.
- 학교 선정 시 유의 사항
 - 두 학교 공히 시설 및 교육의 질이 높으며, 차이점은 ISP에서는 스페인어와 파나마 역사 등 사회 과목 이수가 필수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졸업 후 미국 또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면제되므로 한국인에게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수도 비슷하다.
- 입학 절차
 - 소정의 서류 제출, 인터뷰, 간단한 영어, 수학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 실시
- 필요 서류
 - 전 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여권 사본 및 예방접종 증명서
- 유치원: 상기 학교 내 유치원 및 Pre School이 있음
- 한글 학교: 대만학교 건물을 임차, 운영하는 토요 한글학교가 있음
 - 학생수 65여 명, 수업료 월 35 달러

2) 대학교

- 학제
 - 파나마 국립대학교(학생 45,000명)와 국립공과대학(학생 11,000명), 두 개의 국립대와 카톨릭계 사립대학교인 Universidad Santa María La Antigua(학생 5,000명)가 있음. 학제는 4년제이며,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6년제임.
- 교육비
 - 국립 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 학기 등록금이 45 달러이고 사립 대학은 과목당 33 달러 정도.
- 입학 요건
 - 고교 졸업자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 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학시험을 통과하거나,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과정을 이수해야 함. 이 과정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 필수 교양 과목을 이수 하든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외국 유학생을 위한 특별 강좌(파나마 역사, 미국-파나마 관계 등 3과목)를 이수하여야만 정식으로 등록이 가능함.

(자료원: 현지 실사)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파나마의 기후는 적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연중 고온다습하며,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는 열대 우림 기후에 가까운 특색을 보인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날씨가 맑고 뜨겁다 가도 순식간에 먹구름이 생기고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1시간 ~2시간 가량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러나 카리브에서 볼 수 있는 허리케인 등 폭풍 등은 없으며 비가 온 후에도 즉시 빗물이 증발하거나 지하로 스며들어 말라 버린다.

따라서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는 예는 드물며 그 정도도 크지 않다. 간혹 인근 코스타리카에서 强震이 발생할 경우 그 여진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우려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건기는 1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개월 간 계속되며 우기는 5월부터 시작되어 11월말에 끝난다. 높은 기온이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나, 현지인들은 건기를 여름, 우기를 겨울이라고 부른다.

우기에는 습도가 매우 높으나 비가 오지 않는 계절(12~3월)에는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밤에도 바람이 부는 등 불쾌지수는 높지 않다. 그러나 3월 말 정도가 되면 이미 공기가 후덥지근해지고 습도가 올라가 마치 한국의 장마철과도 흡사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4~5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비가 오지만, 우리나라 한여름 무더위보다는 덜 덥게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엘니뇨(El Niño) 현상으로 통상적인 기후와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월	강우량(mm)	평균기온(c)	평균습도(%)	평균기압(mb)	평균풍속(km/h)
1	47.2	26.7	72.2	1,011.0	15.3
2	4.7	27.1	70.8	1,010.3	15.9
3	26.6	26.4	68.4	1,010.0	15.9
4	86.2	28.2	70.9	1,009.1	13.3
5	216.1	28.5	79.8	1,009.4	9.3
6	180.5	28.5	76.9	1,009.3	8.1
7	154.1	28.6	79.0	1,009.8	8.5
8	235.4	28.9	77.6	1,010.4	8.9
9	308.6	28.0	77.4	1,009.6	8.9
10	277.7	27.7	79.6	1,009.5	9.0
11	253.9	27.5	79.5	1,009.4	10.5
12	82.2	27.0	72.6	1,009.5	15.0
평균	156.1	27.7	75.4	1,009.8	12.4

○ 파나마의 일일 날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http://www.kweather.co.kr/weather/newworld/world_s140.html

□ 출장 시 추천복장

더운 기후 때문에 현지인, 특히 남성은 일반적으로 넥타이, 긴소매 셔츠 등 정장 차림을 선호하지 않으며 직장·업체·사무실·공공 기관에서도 가벼운 남방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러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여름 양복에 긴소매 와이셔츠를 갖추면 무난하다. 보통 사무실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어 반소매 차림으로는 한기를 느끼며 감기에 걸리기도 쉽다.

(자료원: 현지 실사)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GMT 보다 5시간, 한국보다 14시간 늦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침 9시일 때 파나마는 전날 밤 7시이다. 따라서 업무상 현지와 전화로 연락하기는 불편하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연락하는 것이 나은 편이다. 미국의 뉴욕, 마이애미 등과 시간대가 같으며 미국이 서머타임을 실시할 때는 미국보다 1시간 늦다. 파나마는 서머타임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연중 시각이 항상 같다. 연중 밤낮의 길이도 크게 차이나지 않고 일교차도 크지 않다.

2) 근무 시간

금년 내내 지속된 유가 상승이 미치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파나마 정부에서는 국가 절약 운동(Plan Nacional de Ahorro)의 일환으로 2005. 10월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일일 근무 시간을 오전 7:30에서 오후 3:30으로 30분 앞당겨 조정했다.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자동차 대수를 분산시켜 교통 체증도 감소시키고 연료 소비도 줄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국립 교육 및 공공 의료 기관, 세관, 우체국, 소비자 보호 위원회, 수도 및 하수 관리청, 또꾸멘 국제공항 공사, 정부 복권 위원회, 인력 개발 위원회, 국립 도서관, 국립 극장, 파나마 감사원 등이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부터 오후 1시까지 고객을 받으나 오후 3~4시까지 근무한다.

공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다음 월요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된다. 매년 12월은 휴가를 가는 사람도 많고 기업체도 일찍 퇴근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 공무원 근무시간: 07:30 ~ 15:30
- 은행 개점 시간: 08:00 ~ 13:00
- 일반 기업체: 08:00 ~ 17:00
- 일반 상점: 09:00 ~ 20:00

3) 회계 년도

정부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파나마 운하 관리청의 경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이다.

(자료원: 현지 실사)

다. 도량형

1) 도량형

파나마에서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몸무게, 슈퍼마켓 등에서의 제품 중량 및 부피, 몇몇 가전 제품 용량 등에서는 인치, 야드, 파운드, 온스, 갤런 등 미국 도량형을 병행하고 있다.

구분	단위
길이	Km(교통), 인치(가전), 야드(골프)
중량	파운드
주유	갤런

2) 전기 규격

주로 110V, 60Hz를 사용하며 일부 호텔, 공장, 박람회장, 아파트에서는 에어컨용으로 220볼트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110V이기 때문에 변압 가능한 노트북 등의 제품용 콘센트를 따로 준비하거나 변압기를 구입해야 한다. 전기소켓은 한국에서 쓰는 것과 다른 모양이므로 새로운 연결 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원: 현지 실사)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2001년 7월 José Miguel Alemán 파나마 외무부 장관 방한 시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 간 서명한 韓-파나마 사증 면제협정이 2001. 8.9일부로 발효해, "조약 제1569호"로 공포되었다(관보 14868호, 2001.8.4자). 이에 따라 유효한 여권(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을 지닌 양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관광 및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 가능하다.

○ 서울 주재 파나마 대사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Northgate 빌딩 6층
- 전화: 734-8610/2
- 팩스: 734-8613
- 메일: panaemba@kornet.net
- 근무 시간: 09:30-12:00, 13:30-17:00 / 토요일 휴무
- 비자 발급 소요 시간: 신청 후 24시간

미국을 통해 파나마나 중남미로 출장을 실시할 경우 미국 경유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국을 경유한 파나마 여행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캐나다를 통해서도 왕래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파나마 向發 항공사 카운터에서 Boarding Pass 교부 시 Tourist Card를 \$5에 구매 요구할 경우, 비자 면제 협정 사실을 알려 주고 그래도 구매할 것을 요구할 경우 1인당 1매씩 구입하되 기재 사항을 적지 않으면 파나마 도착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황열병, 말라리아 등 특정 풍토병에 대한 예방 접종은 필요 없다.

2) 출입국 심사 및 통관

여행자는 담배 25갑, 시가 50개 및 술 3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하며 과일, 채소, 식품, 꽃, 동물 등은 검역 대상으로 규제한다. 한국에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갖고 올 경우 세관 직원이 세밀하게 검사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최근 광우병이나 조류 독감으로 인해 식품에 쇠고기 또는 닭고기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규제하고 있어, 가급적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현지에서 처음 부임하는 사람들의 이삿짐에 이러한 식품 종류 반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예방 접종

입국 시 요구하는 예방접종은 없다(단, 파나마 체류 후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황열병(yellow fever) 접종을 동 국가들에 입국하기 10일 전에 받고 접종 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4) 외환 신고

미화 US\$ 10,000 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한다.

5) 공항 ↔ 시내교통편

입국 심사 및 검역 검사를 마친 후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TAXI라고 쓰여 있는 부스가 있다. 파나마 관광청(IPAT; Instituto Panameño de Turismo)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행선지를 말하면 공항 택시를 불러준다. 요금은 행선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US\$ 25~30 정도이다. 공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파나마 시티 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에는 일반 택시도 무방하나 가급적 콜택시 혹은 투숙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 혹은 공항 셔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항 셔틀의 경우 1인 당 약 US\$ 10이며 택시는 US\$ 20~30 사이이다.

(자료원: 주파나마 한국대사관, 현지 실사)

마. 환율/환전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국과의 통화 협정에 의거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미국 달러화를 법정 통화(dollarization)로 사용하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공식적으로 미 달러화를 발보아(Balboa; B/)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1달러 이하 동전만을 주조하여 미화 동전과 혼용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환율은 항상 US\$1 = B/1 이다. 미화 동전은 파나마 내에서 사용되나 파나마 동전은 파나마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미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남미 다른 나라처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없으며 환전 개념도 없다. 파나마가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해외 각국의 100여 개 외국은행 영업)로 크게 발돋움한 것은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까닭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도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가는 저렴하지 않아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지폐, 동전 모두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위가 큰 지폐(10달러, 20달러, 100달러 등)는 거스름돈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잔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달러화의 고액권 위조지폐가 나돌면서 이에 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50달러, 100달러 지폐는 계산을 꺼릴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1달러나, 25센트, 10센트 등 잔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택시 운전사에게 1달러 이상의 고액 지폐를 주면 잔돈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항상 발생한다. 50달러, 100달러 지폐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중남미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예: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소액은 은행에서 환전해주지 않으므로 파나마에 오기 전에 아예 미화로 환전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상점, 식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원: 현지 실사)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파나마 COPA항공에서 LA-파나마 직항노선을 2000년6월1일부터 매일 운행함에 따라 파나마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 서울-LA-파나마 직항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즉 미국 CONTINENTAL 항공이 COPA 항공 경영권을 인수하고 516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12대의 보잉 737-200을 구매, 중남미 항공노선을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파나마 출장은 LA를 경유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LA에서 마이애미를 거쳐 파나마로 가거나 멕시코시티, 칸쿤을 거쳐 파나마로 가는 비행편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단체여행의 경우 너무 싼 비행기표에 치중하면 LA-파나마 구간 사이에 여러 도시를 Transit 하는 비행편이 될 수 있는데 각 도시 공항마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너무 힘든 여행이 될 수 있으므로 티켓팅 시 중간경유지 여부 및 탑승 연결시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욕을 거쳐 가는 경우에는 뉴저지 Newark공항에서 출발하는 CONTINENTAL 항공의 뉴욕-파나마간 직항 노선을 타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Newark 공항이 아닌 케네디 공항 등 다른 공항에서 내릴 경우에는 뉴욕이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 연결 항공편 탑승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중남미 행 비행기로 갈아 탈 때는 2시간 전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중남미 행 비행기에 CHECK-IN 해야 짐이 제대로 온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중남미 행 비행기에는 오버 부킹 사례가 많아 늦게 수속한 사람들의 짐이 같이 오지 못하고 다음 날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주지역에서 파나마를 경유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파나마공항에서 항공편이 같은 편이더라도 비행기가 바뀐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파나마를 경유하여 L.A.로 가는 CM 448(파나마 COPA 항공)의 경우, 파나마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며 만약 부에노스-파나마간 노선이 연착하면 이미 파나마-L.A.간 CM 448은 출발한 상태로서 파나마에 하루를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호텔에 투숙하고 다음날 비행기에 탑승하여 일정이 하루씩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중남미 출장 시에는 선진국과 같이 모든 것이 정확히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고 만약에 파나마 등 경유지에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상시 휴대해야 한다.

미국을 경유해 파나마로 여행할 때 반드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오는 경우 항공료는 2배 가량 비싸진다.

한편, 파나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회사는 Copa, Continental, American Airlines, Delta, Taca, Iberia, Air Madrid, Lacsa 등이다.

2) 국내교통

외국인의 경우, 버스 이용은 어려우나 택시 이용은 편리하다. 단,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 시간에는 택시 잡기가 힘들므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미터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나 파나마는 도시 규모가 작아 보통 US\$ 1-5정도의 요금으로 웬만한 거리는 다 갈 수 있으며 콜택시의 경우, 호출요금으로 40 센트 정도 더 주면 된다. (팁 제도 없음)

택시운전사 바가지 요금 사례는 거의 없으며 호텔택시를 이용할 경우 보통 택시 요금의 3-4배 비싸다. 그러나 일반택시들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택시들이 대다수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택시회사는 América Libre라는 회사로 택시 윗면에 회사명을 달고 다닌다. (전화번호: 215-2062)

한편 콜론 자유무역 지대로 출장할 경우에도 파나마시-콜론간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왕복 120-130볼로 하루 택시를 전세 내는 것이 편리하다. 콜론자유무역지역에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택시는 콜론자유무역지역 출입구까지 이용하고 그 안에서는 걸어 다녀야 한다. 콜론 자유무역 지역을 출장하는 경우에는 KOTRA 해외세일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이어 상담 주선, 출입절차 간편 등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 참고

- 공항~파나마 시내: US\$ 25 (편도)
- 파나마 시~콜론: US\$ 60-65 (편도)

버스로는 파나마 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갈 수 있으며, 기차로는 파나마시티에서 콜론 자유무역지대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배로는 Taboga, John Wayne Island로 갈 수 있다. 국내 비행사로는 Aeroperlas(www.aeroperlas.com)와 Air Panama(www.flyairpanama.com)가 있으며 국내 공항이 있는 도시는 David, Bocas del Toro, Darién, El Porvenir, Colón, Contadora, Isla San José 등이 있다.

3) 국제통신

파나마는 국제전화료가 무척 비싸다. 서울 통화 시 1분에 US\$ 4이며 호텔에서는 1분당 US\$ 7씩 받고 있어 전화를 잘못하면 호텔 요금보다 전화 요금이 훨씬 많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급적 통화를 빨리 끝내고 한국에서 전화를 하게 하거나 Collect Call(교환 106)을 활용하여야 한다.

호텔에 따라 Collect Call도 요금의 30%를 청구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화를 하게 하거나 공중전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00)-(82)-(지역번호: 앞의 0번은 제외)-(국번)-(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파나마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반 우편의 기본 요금은 US\$0.60이며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DHL은 1kg 이하 소포가 한국까지 US\$ 265이다.

4) 국내통신

국내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으로 파나마시내의 경우 1분에 2센트이며 콜론시외 전화의 경우 1분에 15센트이다.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휴대폰에 전화하는 경우 분당 33센트이며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 하는 경우 분당 약 35센트(요금제에 따라 약간의 차등)이다.

5) 특송(DHI)

특사배송시 DHL, Fdax, UPS 등이 권장되며, EMS특송은 door-to-door개념이 아니며, 직접 수령까지는 한국기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일반 호텔

호 텔	상 세 정 보
○ HOTEL EL PANAMA - Via Espana 111, P.O.BOX 1753 Panama1, Rep. of Panama - Tel : 507-215-9000 / Fax : 507-269-3309 - E-mail : reservas@elpanama.com - Website : www.elpanama.com - Room Rate (세금 10% 별도) : Single US\$110 Double US\$120 (KOTRA 할인가격)	- 파나마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로 도시 중심부에 있다. - Via Espana 쇼핑 거리와 한국 식당이 가까이 있다. - 해산물 뷔페식당이 있다.
○ SHERATON HOTEL(구 Cesar ParK HOTEL) - Via Israel y Calle 77, San Francisco P.O.BOX 6-4268 El Dorado, - Rep. of Panama - Tel : 507-270-0477 / Fax : 507-226-4262 - Email : info@caesarparkpanama.com - Website : www.caesarparkpanama.com/ - Room Rate (세금 10% 별도) : Single US\$110 Double US\$120(KOTRA 할인가격)	- 비교적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이 있어 국제 회의나 사절단 상담회 개최 시 적합하다. - ATLAPA 전시장 맞은 편에 있어 파나마 박람회 참가 시 투숙 호텔로 이용된다. - 바닷가 가까이 위치해 전망이 좋다.
○ MARRIOTT HOTEL - Av. Ricardo Arias y Calle 52 Area Bancaria P.O.BOX 832-0498 WTC, Panama City Rep. of Panama - Tel : 507-210-9100 / Fax : 507-210-9110 - Website : www.marriott-hotels.com/ptypa - Room Rate (세금 10% 별도) : Single & Double US\$150	- 한국 대사관 근처에 있다.
○ MIRAMAR INTER-CONTINENTAL - Plaza Miramar, Avenida Balboa, P.O.BOX 7336 Panama 5, Rep. of Panama - Tel : 507-206-8888 / Fax : 507-223-4891 - Email : panama@interconti.com - Website : www.ichotelsgroup.com - Room Rate (세금 10% 별도) : Single US\$120 Double US\$130 (KOTRA 할인가격)	- 파나마 시내 바닷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이다.
○ Four Points Hotel Sheraton - Calle 53 Marbella y Avenida 5a. B Sur, P.O. BOX 832-0239 WTC, Rep. of Panama - Tel : 507-265-3636 / Fax : 507-265-3550 - Email : reservas.sheraton@ghl.com.co - Website : www.ghl.com.co - Room Rate (세금 10% 별도) : Single US\$ 110 / Twin US\$ 120 (KOTRA 할인, 세금과 조식포함) * 구 Radisson Hotel	- 무역관이 입주해 있는 파나마 World Trade Center 단지에 있는 호텔. 무역관을 활용코자 하는 비즈니스 출장자에게 편리하다.

비즈니스 호텔

호 텔	상 세 정 보
○ HOTEL CONTINENTAL - Via Espana, Ricardo Arias Street P.O.BOX8475 Panama7, Rep.of Panama - Tel : 507-265-5114/5 / Fax : 507-265-6380/6378 - Email : reservas@hotelesriande.com - Website : www.hotelesriande.com - Room Rate (세금 10% 별도) :Single US\$70 Double US\$75 (KOTRA 할인가격)	- 파나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 근처에도 같은 이름의 호텔이 있다. - 따라서 택시를 탈 경우 파나마 시내 Via España에 있는 호텔로 가자고 해야함.
○ HOTEL GRANADA - Via Espana y Eusebio A. Morales, P.O.BOX 8457 Panama7, Rep. of Panama - Tel : 507-269-1068 / Fax : 507-263-7197 - Email : granada@hotelesriande.com - Website : www.hotelesriande.com - Room Rate (세금 10% 별도) :Single US\$50 Double US\$50 (KOTRA 할인가격)	- 무역관을 통하여 예약하면 비교적 경제적인 요금으로 투숙할 수 있다.

아파트형 호텔

호 텔	상 세 정 보
○ APARTAHOTEL LAS VEGAS - P.O.BOX "D" Balboa, Rep. of Panama - Tel : 507-300-2020 / Fax : 507-300-2021 - Email : hotel@lasvegaspanama.com - Website : www.lasvegaspanama.com - Room Rates (세금 10% 별도) : Single US\$35 Family US\$48 (KOTRA 할인가격)	- EL PANAMA HOTEL 뒤에 위치
○ APARTAHOTEL TORRES DE ALBA - Calle Eusebio A. Morales y 55 - P.O.Box 87-4392 Zona 7, Panama - Tel : 507-269-7770 / Fax : 507-269-3924 - Email : reservaciones@torresdealba.com.pa - Website : www.torresdealba.com.pa - Room Rates (세금 10% 별도) : Family US\$75 (KOTRA 할인가격)	- EL PANAMA HOTEL 뒤편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형 호텔이다.
○ APARTA COSTA DEL SOL - Tel : 507-206-3333 / Fax : 507-206-3336 - Email : costasol@sinfo.net - Website : www.costadelsol-pma.com - Room Rates (세금 10% 별도) : Single US\$52 Double US\$45.00 : Triple US\$57 (KOTRA 할인가격)	-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형 호텔이다.

자료원: 각 호텔 별 홈페이지, 현지 실사

2) 식당

파나마 시에는 세계 각국(이태리,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스위스 등)의 식당과 파나마 전통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있다. 그러나 막상 내놓은 음식은 원래의 맛이 아니라 파나마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변형된 음식이라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파나마의 식단은 그리 다양하지 않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다가 기름에 볶은 쌀밥, 햄, 소시지, 콩(현지어로는 poroto, lenteja)을 푹 삶은 것이 대부분이다. 음식마다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거나 익혀서 지방 함량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담백하고 얼큰한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름을 많이 쓰는 것, 탄산음료나 주스를 많이 마시는 것, 특히 糖度가 대단히 높은 디저트를 먹는 것 때문에 자연히 비만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비만 환자가 많은 것이 파나마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이다. 파나마 어디를 가든지 도처에 중국 식당이 있으나 한국인 식성에는 잘 맞지 않은 음식이 대부분이다. 일본 식당도 파나마 시내에 몇 군데 있으나 매우 비싸며 역시 파나마인의 입맛에 맞춘 음식이다. 한국 식당은 한국관(Korea House), 서울 식당(Restaurante Seoul) 두 곳이 있다.

□ 한국식당

- 서울식당
 - 위치: Vía España y Calle 46 Venezuela
 - 전화: 264-2785
- 한국관
 - 위치: Calle 52 Este, Campo Alegre (Cine Aries 극장 맞은편)
 - 전화: 223-0176

□ 현지식 및 외국 식당

- El Trapiche
 - 위치: Vía Argentina, Edf. Alejandra
 - 전화: 269-4353
 - 주요리: 파나마 전통 음식
 - 참고: 파나마의 다양한 토속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파나마 음식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들려야 할 식당이다. 파나마인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 현지 시민 중에서는 이 식당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만큼 유명한 식당이다.
- Restaurante Boulevard Balboa
 - 위치: Avenida Balboa y Calle 31 E
 - 전화: 225-0914
 - 주요리: 일반 대중 음식
 - 참고: 파나마의 전형적인 대중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며 파나마의 유명 변호사, 정치인 등도 애용하는 식당이다. 평일에 들려 본다면 파나마의 화이트컬러 직장인들 생활 모습을 엿볼 수도 있다. 파나마 정치인이나 고위 인사들도 많이 찾는 식당이다.

- Gaucho's Steak House
 - 위치: Calle 48 Casa No. 20V, La Esquina Calle Uruguay, Bella Vista
 - 전화: 263-1405
 - 주요리: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parrillada, asado)
 - 참고: 가격은 비싼 편이나 아르헨티나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아르헨티나 산 고기는 구제역병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 고기를 쓴다고 한다. 파나마에서는 가장 좋은 스테이크 식당 중 하나이다.
- Os Segredos Da Carne
 - 위치: Via Italia, Punta Paitilla, Edificio Posada del Rey, Planta Baja, Local #1
 - 전화: 263-0666
 - 주요: 브라질식 스테이크
 - 참고: 비교적 가격은 비싼 편이나 브라질풍 스테이크를 뷔페식으로 무제한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 Romanaccio
 - 위치: Galeria Marbella(파나마무역관 인접)
 - 전화: 264-9482/4204
 - 주요리: 스파게티, 피자 등 이태리 음식 및 고기, 생선 등
 - 참고: 비싸지 않은 가격에 스파게티, 피자,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대중 식당이다. 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에 음식 맛도 매우 좋다.
- BAHIA BALBOA
 - 위치: Avenida Balboa
 - 전화: 223-7751
 - 주요리: 해산물, 석쇠구이
 - 참고: 해산물로 유명하며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바다가 보인다.
- BENIHANA
 - 위치: Calle 60 E, Obarrio
 - 전화: 263-9817
 - 주요리: 일식
 - 참고: 우동, 회, 통닭구이 등이 좋은 일식 전문점으로 비교적 값이 싸다.
- Fuji
 - 위치: Via Brasil #C-32, Urbanizacion Obarrio
 - 전화: 223-7868, 223-7869, 223-7780
 - 주요리: 일식
 - 참고: 우동, 회, 도시락 등이 좋은 일식 전문점으로 다른 일식당에 비해 값이 싸다.
- Nobu
 - 위치: Calle 49 y Calle Uruguay
 - 전화: 265-1311
 - 주요리: 일식
 - 참고: 우동, 회, 도시락 등이 좋은 일식 전문점이다.

- EL CORTIJO
 - 위치: GRANADA HOTEL 근처 EL CANGREJO 도로상에 위치
 - 전화: 269-6386
 - 주요리: 해산물 및 양식
 - 참고: 파나마의 최고급 식당 중 하나로 아늑한 분위기가 좋다.
- TRES CALINI
 - 위치: FELIX MADURO 백화점 뒤편에 위치
 - 전화: 269-9951
 - 주요: 이탈리아 요리
 - 참고: 파나마에서 이탈리아 요리로는 가장 유명한 식당이다.
- LA CASA DEL MARISCO
 - 위치: Avenida Balboa
 - 전화: 223-7755
 - 주요리: 해산물
 - 참고: 실내 장식이 매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다.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
- LAS TINAJAS
 - 위치: EL EJECUTIVO HOTEL 주변의 Calle 51, BELLA VISTA
 - 전화: 269-3840
 - 주요리: 파나마전통 요리
 - 참고: 파나마 고유의 요리법으로 유명하며 파나마 전통무용 공연이 있다.
- Lung Fung(龍鳳)
 - 위치: Avenida Transistmica
 - 전화: 260-4011
 - 주요리: 중국요리
 - 참고: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대중 중국식당이나 음식 맛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니다.
- Golden Unicorn
 - 위치: Evergreen 빌딩 4층
 - 전화: 226-3838
 - 주요리: 중국요리
 - 참고: 비교적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음식을 제공한다.
- MARBELLA
 - 위치: Avenida Balboa
 - 전화: 225-9065
 - 주요리: 해산물, 스페인 요리
 - 참고: PAELLA와 해산물로 만든 수프가 일품. 큰 새우요리와 가재요리가 맛있다.
- PORTOBELLO
 - 위치: EL PANAMA HOTEL 내
 - 전화: 269-5000
 - 참고: 전통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및 파나마 음식을 낸다.

○ Mexicanita

- 위치: Calle 53
- 전화: 263-8277
- 주요리: 멕시코 음식
- 참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멕시코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메뉴는 다양하지 않다.

(자료원: 현지 실사)

아. 관공서 관행

대체적으로 친절한 편이나 민원처리 기간이 매우 늦고 관료주의적인 점은 고질적인 병폐이다. 동양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배타적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서류나 요건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우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직업 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정실주의(파나마에서는 이를 favoritismo, nepotismo라고 부름)가 보편적이어서 정권 교체 때마다 공무원들이 대폭 물갈이 된다.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나마 정부는 2005. 10월부터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일일 근무 시간을 오전 7:30에서 오후 3:30으로 30분 앞당겨 조정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까지 대 고객 업무를 끝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불 일을 마치는 것이 좋다. 가기 전에 모든 서류, 자료, 날인, 서명 등을 100% 구비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작 당사자는 아무리 일이 바쁘고 급해도 서류 하나라도 모자라면 다시 돌려 보낸다. 불일 보러 온 사람에게 봉사한다기보다는 명령, 지시한다는 태도가 강하다. 새로운 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국립 교육 및 공공 의료 기관, 세관, 우체국, 소비 자보호 위원회, 수도 및 하수 관리청, 또꾸멘 국제공항 공사, 정부 복권 위원회, 인력 개발 위원회, 국립 도서관, 국립 극장, 파나마 감사원 등이다.

(자료원: 현지 실사)

자. 공휴일

2008년 공휴일

월	일	공휴일명	비고
1	1(화)	신년휴일(Ano Nuevo)	
1	9(수)	순교자의 날(Día de los Martires)	
2	19(화)20(수)	카니발 (Carnaval, 물의축제일)	4일 연휴
4	3(목)4(금)	부활절 휴일(Semana Santa)	4일 연휴
5	1(수)	노동절(Día del Trabajo)	
8	15(수)	파나마 시 건립기념일 (Fundacion de la Ciudad de Panama)	파나마시 해당
11	3(토)	대콜롬비아독립기념일 (Separacion de Panama de Colombia)	
11	5(월)	국기의날 (Día Nacional de la Bandera)	
11	10(토)	로스산토스 독립항쟁기념일 (Grito de la Villa de los Santos)	
11	28(수)	대 스페인독립기념일 (Independencia de Panama de Espana)	
12	8(토)	어머니의 날 (Día de las Madres)	
12	25(화)	크리스마스(Navidad)	

□ 현지 축제 등 장기 휴일로 주재국 방문을 피해야 할 시기

물의 축제가 있는 2.17~20(4일 연휴), 부활절 기간인 4.5~8(4일 연휴) 기간 동안 가급적 현지 비즈니스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2월 물의 축제 기간 중에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카니발이 열리고 시민들이 서로 물을 뿌리면서 축제기간을 즐긴다.

(자료원: 현지 실사)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 준비

□ 의복 준비

파나마는 적도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므로 가벼운 하복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에어컨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비즈니스에는 긴 소매 와이셔츠에 여름 정장 등을 주로 착용한다.

□ 전기 규격

파나마의 전기 규격은 안전을 중시하는 미국과 같은 110V 60Hz이다. 일부 호텔이나 아파트에는 220V 단자도 있긴 하나 보편적이지 않아서 110V/220V 겸용(Free Voltage) 전자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랜스포머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2) 여행 여건

□ 치안

파나마는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마약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리에가 사태 때 방출된 총기가 완전 회수되지 않아 간혹 시중에 총기가 나돌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파나마 시내의 치안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콜론, 산미겔리토(San Miguelito) 같은 지역은 치안 상태가 나쁘다. 파나마 시내에도 Chorrillo같은 지역은 현지인조차도 출입을 꺼리는 할렘으로 접근을 절대 삼가야 한다. 동양인을 “chino”라고 부르며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와 같은 우편 주소가 없기 때문에 거리 이름과 번지수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건물 옆의 큰 장소, 전화국 옆의 큰 약국, 어느 길 모퉁이" 등과 같이 어림짐작 또는 경험으로 장소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현지인들은 명함에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주소를 표기한다. 시내의 경우 택시비는 US\$ 1 내지 US\$ 3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잡을 수도 있으며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다. 호텔 전용 택시의 경우는 일반 콜택시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나 택시 대절 관광 등에 편리하다. 한편,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최대 90일간 운전이 가능하다.

□ 팁 관행

식당에서는 10% 내외의 팁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택시는 팁이 없다.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가방당 US\$ 1 정도의 팁이 보통이며 투숙 호텔에서 침실 청소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침대 위 눈에 띄는 곳에 침대당 US\$ 1 정도 놓아 둔다.

□ 식수

연중 비가 많이 오는 나라로 수질이 좋지 때문에 수도물은 식수로 이용한다. 물론 슈퍼마켓에 가면 생수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파나마(Panamá)라는 말 자체가 “생선과 물이 많다”라는 중미 원주민의 옛날 말이다.

□ 물가

파나마는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수준은 싼 편은 아니다.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는 파나마의 평균관세는 8.25%로 중남미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대부분 공산품 관세가 5-15%이며 농산물 등 식료품은 무관세(자국 생산품 제외)가 많다. 그러나 쌀, 감자 등과 같은 자국 생산 농산물은 관세가 매우 높다. 일반 상품 이외의 서비스 요금(예: 전화기 수리, 컴퓨터 수리, 인터넷 등)은 한국에 비해 대단히 비싸지만 기술 서비스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3) 건강 유의사항

□ 건기

12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건기 철 기간에는 직사 광선이 강해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우기

4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우기에는 습한 기후에 의한 피부염 및 모기에 의한 뎅기(dengue),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병은 걸리고 나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료원: 현지 실사, 파나마관광진흥청)

카. 유용한 연락처

1) 한국대사관 및 KOTRA

□ 대사관

- 전화: (507)264-8203, 264-8360, 269-2257
- 팩스: (507)264-8825
- 주소: Apdo. 8096, Panama 7, Calle 51E, Ricardo Arias, Campo Alegre, Edificio Plaza P.B. Rep. de Panama
-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ek/ek_a002/ek_papa/ek_01.jsp
- 이메일: panama@mofat.go.kr

□ 파나마무역관(Korea Trade Center)

- 전화: (507)264-8105, 264-7970
- 팩스: (507)264-0928
- 사서함: P.O. Box 0832-2250, W.T.C., Panama, Republic of Panama
- 주소: Oficina 1705, Edificio "World Trade Center", Calle 53E, Marbella, Bella Vista, Rep. de Panama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panama/>
- 이메일: kotra@psi.net.pa, kotra1@psi.net.pa

파나마에는 우편배달부 제도가 없어 일반 우편물은 반드시 P.O. Box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DHL, Express Mail 등 특사배달의 경우,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배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우편으로 보낼 경우는 반드시 P.O. Box를, 특사로 보낼 경우는 실제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2) 한인 단체

- 한인회: (507) 213-0123
- 한인 교회: (507) 315-0367
- 한인 카톨릭 공동체: (507) 430-9930
- 한인 골프회: (507) 223-9700

3) 파나마 주요 연락처

전화번호 문의	102	차량 대여	AVIS: 278-9444 Hertz: 260-2111
경찰	104	전화 고장시	Cable & Wireless: 888,123
	사법경찰: 262-6077, 경찰 232-5090, 232-5957		
화재	103	수도 고장시	IDAAN: 229-3477
긴급의료기 관요청	Central Telefónica: 263-6060, 269-0333	전기 고장시	Elektra: 800-0111 Edenet Edechi: 315-7222
	종합병원 응급실: Clínica Paitilla 269-5222, 263-7977		
	야간 의사 문의: 269-5222, 263-7977		
	야간 약국(공휴일 포함): Arrocha, Shell 주유소(24시간, 각 지역 마 다 있음)		
차량 수리	현대 대리점: 전화 236-7475, 236-1382 Fax 236-7980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Locksmit)	225-3224, 0932

자료원: 현지 실사

타. 관광 명소 및 주요 쇼핑 센터

1) 주요 관광지

파나마의 관광정보는 파나마 관광청(Instituto Panameño de Turismo: IPAT) 홈페이지 <http://www.ipat.gob.pa/> 혹은 동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visitpanama.com 에서 입수할 수 있다. 파나마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나 아직 미개발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다.

□ 파나마 운하(Canal de Panamá)

세계 최대의 토목공사의 하나인 파나마운하는 1881년 불란서가 시공한 이래 미국이 완공한 1914년까지 64억불이 투입되고 25,000여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절토량은 San Francisco 에서 뉴욕까지 만리장성을 쌓기에 충분한 엄청난 대역사물이다.

배를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산정호수로 끌어올리는 3단계 갑문식으로 하루 평균 33척의 배가 횡단하고 있는데 MIRAFLORES 갑문(시내에서 20분거리)과 GATUN 갑문 (50분거리)에서 대형 선박의 운하 통과를 볼 수 있다. 배가 운하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배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용수는 5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과 동일하다.

□ 콜론자유무역지대 (Zona Libre de Colón)

세계적으로 볼 때 홍콩 다음가는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대서양 쪽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파나마 시티에서 85KM)해 있다. 자유무역지대에는 현재 1,400여 개 무역 업체가 중남미 전역을 상대로 수출입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유태인, 아랍계, 중국계 및 인도계 등 다양한 인종 가운데 한국 교포 및 상사 지사도 영업 중이다.

파나마 제2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콜론자유무역지대 외부 콜론 시내는 슬럼화해 있어 치안이 불안하고 데모, 시위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될 때는 안내자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블라스(San Blas)

대서양 쪽 연안에 있는 350여 개의 섬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Kuna 인디안들이 자치제를 이루어 살고 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인디안 부락촌을 볼 수 있다. 파나마 시티에서 경비행기로 접근 가능하며 콜론 쪽에서는 선박 편으로 갈 수 있다.

□ Bambito 와 Boquete

파나마 시에서 서쪽으로 약 500km를 달리면 COSTA RICA와 국경 지대인 치리키 주의 Bambito 와 Boquete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은 해발 7,000피트 높이 산이 있어 '작은 스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규모 국화 재배, 경마 사육장, 송어 양식장 등이 있고 등산을 즐길 수 있다.

□ Panamá Viejo

파나마에 현존하는 스페인 시대의 제일 오래된 유적지로서 1519년에 건설되어 식민지 노획물을 스페인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기지이다. 1671년 영국 해적 Morgan의 침입을 받아 폐허화되었으나 현재 그 잔해가 남아 있어 관광지가 되었다. 위치는 파나마 시내 태평양 연안에 있다.

□ Los Pueblitos

파나마 시내에 위치한 일종의 민속촌이다. 파나마의 전통 가옥, 의상, 토산품 등을 전시해 두었으며 야간에는 민속 무용 공연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1인당 1달러이다.

□ Contadora 섬

파나마 시에서 60km 거리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섬으로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관광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호텔 및 민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바다낚시를 할 수 있다. 경비행기로 15분 거리이며 선박편의 경우 5~6시간 소요된다.

□ Coronado 해안

파나마 서쪽 8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경관이 수려하며, 파나마 시에서 가깝고 파나마 부유층 별장이 즐비하게 운집되어 있는 곳으로 호텔, 현대식 콘도, 미니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지이다.

□ Portobelo 항구와 Isla Grande 섬

대서양 쪽 160km 지점, 카리브 해안에 위치한 Portobelo항에는 스페인왕조 점령 당시의 요새와 성당 등이 남아 있다. Portobelo에서 작은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Isla Grande 섬은 해변이 수려한 곳에 스쿠버 다이빙 및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며, 호텔 등 숙박 시설이 있다.

□ Panarail Tourism

파나마운하 근처 Balboa에서 Colon까지 운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최단 거리와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차 여행코스이다.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시 일부 철로가 파괴, 중단되어 오다가 2001.11.27 관광 열차로 개조, 개통됨. 운하 수로와 병행하여 달리는 객차로 바라보는 호수와 밀림의 경관은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 하루 1회 왕복, 소요시간 1시간(07:15 Balboa 출발 08:15 Colon 도착, 17:15 Colon 출발, 18:15 Balboa 도착)이다.

□ Casco Viejo (San Felipe)

1997년 UNESCO가 Casco Viejo 지역이 1800년 초 건축된 도시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여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에는 대통령 궁을 비롯하여 주요 관청과 프랑스 대사관, 운하 박물관, 광장, 성당 및 빈민촌이 함께 어우러진 건물들이 건축 당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슬럼화되어 있어 야간에는 매우 위험하며 낮에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Museo de Canal

파나마운하의 역사 박물관으로 파나마 운하 공사 당시의 건축 기자재 및 미국의 파나마 운하 인도 조약서 진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소요 시간 약 30분이다.

□ Amador

파나마 시내 정면 태평양 상의 조그마한 섬으로 파나마시내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파나마운하 입구에 위치하므로 과거 미군이 군사요새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관광, 산책로 등 공원지역이 되었다. 섬과 파나마 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폭이 약 10M 정도로 양 옆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야외운동으로 최적의 장소이다. 섬 안에는 다양한 식당이 있다. (<http://www.fuerteamador.com>)

□ Puente de las Américas (Bridge of the Americas)

파나마운하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길이 3KM의 해상 아치형 다리로 말그대로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다리 북쪽으로 계속 가면 파나마를 지나 코스타리카, 중미, 멕시코, 미국에까지 이르며 남쪽으로는 파나마 시내와 바로 연결된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파나마운하의 선박, 푸른 바다, 항구 등의 모습이 장관이다.

2) 주요 쇼핑 센터

□ Multicentro

Balboa Avenue에 위치한 쇼핑몰로 약 145개의 상점이 모여 있다. 주요 품목은 의류, 가정 및 부엌 용품, 신발, 서적, 주류, 액세서리, 선물용품 등이다. 이 외에도 카지노, 영화관, 나이트, 레스토랑, 푸드 코트가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도심 문화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영업 시간은 월-수 10:00~20:00, 목-토 10:00~21:00, 일 11:00~19:00 이며 영화관, 식당가는 좀 더 늦게까지 운영한다.

□ Albrook Mall

Albrook 터미널에 위치한 쇼핑몰로 파나마에서는 가장 최근에 개장한 대형 쇼핑몰이다. 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푸드 코트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다양하여 가족 단위로 놀러 가기에 적합한 곳이다.

(자료원: 파나마 관광청, 현지 실사)